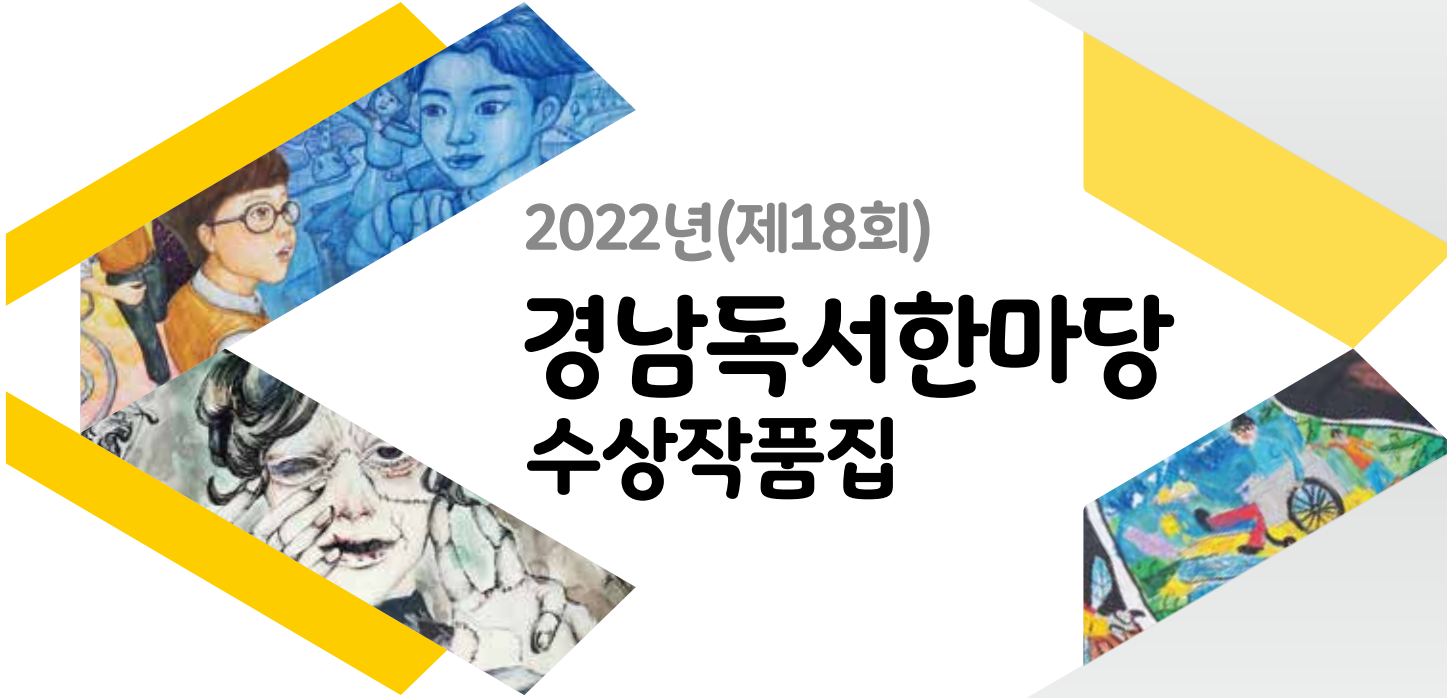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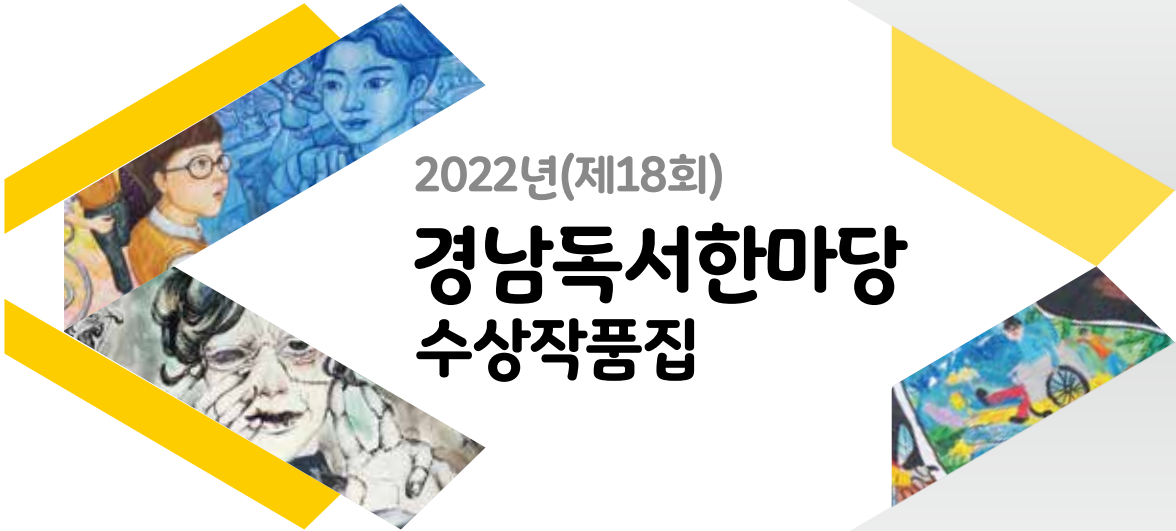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사 업 명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기간 2022년 1월 ~ 12월
운영 대상 경남도민
운영 내용 독서공모전 및 독서진흥행사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협 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발 행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055)278-2832
<https://cwlib.gne.go.kr>
비매품
(책표지 출처: 인터넷 서점)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4 심사평

6 수상작품

글 부문

- 초등부 9
- 청소년부 41
- 일반부 53

그림 부문

- 초등부 59
- 청소년부 71

영상 부문

- 초등부 77
- 청소년부 81

84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88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89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2005~2021년)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심사평

글 부문

경남독서한마당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어느 해보다 높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안중근의 말처럼 독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독후감은 하나의 장르로서 내용과 감상의 비율이 1:9, 2:8이 적절하다. 그 반대일 경우 자칫 설명하는 글이 되기 쉽다.

초등 저학년부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별'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 지구에서 인간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내용이 좋아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초등 고학년부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의 '생각으로 편리한 멋진 삶'은 독후감의 정석에 맞게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 공감을 주어 대상으로 선했다.

청소년부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는 것'을 쓴 창원남산고 2학년 송석현 학생이 쓴 글이 눈에 띄었다. 청소년이 겪는 갈등을 책을 읽으면서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일반부

예전에 비해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 고심 끝에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쓴 김세은을 선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전 지구적 문제에 반해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독후감 쓰기가 일반인에게도 더욱 관심을 가져 독서하는 인구가 늘어가기만을 기대한다.

그림 부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에 1,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꾸준한 작품 출품은 이 행사의 취지가 잘 전달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상 3점, 최우수 22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심사를 했으며, 초등 저학년 대상 작품은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을 읽고 꿀벌의 일상과 자유로운 상상을 더해 다양한 색상의 구성 속에 노란색의 강조 효과는 책 속의 이해도를 높이는 우수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초등 고학년 대상 작품은 「마지막 레벨업」이라는 책을 읽고 표현한 섬세하고 테크닉적인 기교와 인물묘사는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대상은 「프랑켄슈타인」 책을 읽고 표현한 작품으로 책 속의 이야기를 대범한 화면 구성과 섬세한 데생력으로 매우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영상 부문

책을 읽어 주거나 소개해주는 유튜브 속 '북튜브'가 있다면, 경남독서한마당에는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재해석된 영상으로 만들어진 책 소개 즉, '북트레일러 영상'이 있다.

이러한 분야적 특수성은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상상의 기회를 막는 것이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아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의 고립화 이후에 타인과의 소통의 통로로서 영상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영상은 대화이며, 느낌이며, 놀이로서 소통의 수단적 요소인 것이다.

책 소개를 담은 영상,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영상 등 다양한 재미들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과물들은 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얼마나 아이들이 주어진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연구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트레일러 영상은 종이책을 단순히 읽고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책의 핵심 내용을 주제에 맞게 재해석하여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초등 60편, 중고등 90편으로 150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권장도서를 단순한 설명형식으로 제작된 영상, 작품 주제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 제작된 영상들이 주를 이루었다. 수상작들은 권장도서에 대한 아이들의 깊은 이해도와 완성도, 규격에 맞는(3분 이내)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출품작품들은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깊은 생각과 성장기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책 속의 내용과 잘 융합하여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심사 후 따뜻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초등 대상**

- 010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별
수정초등학교 3학년 양승현
- 011 생각으로 편리한 멋진 삶
산청초등학교 6학년 이시현

경상남도교육감상**초등 최우수**

- | | |
|--|--|
| 013 보고싶은 꿀벌 아피스에게
군북초등학교 2학년 빈지윤 | 026 꼭 우리 지구를 지키자
웅양초등학교 4학년 이영민 |
| 015 생각이 착한 손잡이를 만든다!
용호초등학교 3학년 김도현 | 027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진동초등학교 5학년 박수현 |
| 017 겨울아! 나에게도 와줄래?
진영장초등학교 3학년 박가영 | 028 사람 아닌 사람 백정
김해신명초등학교 5학년 박준현 |
| 018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환경오염 대비
신양초등학교 3학년 박다은 | 030 잉어처럼 걱정이라는 물살을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통영초등학교 5학년 박현민 |
| 019 내 연필에 고마운 마음 먹기
진해냉천초등학교 3학년 심은성 | 032 난 오하늬 몬스터 차일드!
창녕초등학교 5학년 백승리 |
| 021 뜻밖의 선물
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이은재 | 034 용기 있는 내가 되기
진해냉천초등학교 5학년 이슬 |
| 023 지구에게 쓰는 편지
용호초등학교 3학년 장준영 | 036 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
관동초등학교 5학년 허근영 |
| 024 우리 모두 자유롭게
제석초등학교 3학년 조윤진 | 038 차별과 편견, 그리고 판단과 말
호암초등학교 5학년 허서윤 |
| 025 깨끗한 지구를 위한 나의 작은 실천!
가야초등학교 3학년 최은우 | 039 강을 건너는 배는 내가 만든다
남지초등학교 6학년 김민석 |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별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수정초등학교 3학년 양승현

여름방학 숙제로 책을 선택할 때 글 밥이 적고 그림이 많아 보여 이 책을 즐겁게 선택했다. 하지만 책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무섭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심히 쓰고 버리던 물건들이 동물과 식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사라지게 하는 행동이 되었다니... 지구에서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칠 전 TV에서 북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내가 상상하는 북극은 빙하로 가득한 얼음 나라에 북극곰이 사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북극에는 빙하는커녕 진흙과 갯벌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북극곰의 발자국만 남아있었다. 빙하가 녹는 것이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추위 대신 더위가 생겨나고 모기가 많아졌다. 빙하가 녹는 것은 북극의 위험만은 아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세계 곳곳에 낮은 지역은 물에 잠겨 생활 터전을 잃게 된다. 기후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물난리가 나,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 여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파도 놀이를 하던 해변도 물에 잠겨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새가 떠난 산에서, 물고기가 놀지 않는 강에서, 풀벌레 노랫소리 끊긴 숲에서, 바다 생물들이 떠난 갯벌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

나는 종이컵 하나 막 쓰고, 에어컨 바람 밑에서 종일 게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 걷기 힘들다며 차를 타고 가자고 했던 일이 생각나 후회가 되었다. 알록달록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초록색 지구가 어두운 회색의 답답한 지구가 되지 않도록 나부터 지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으로 편리한 멋진 삶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를 읽고

산청초등학교 6학년 이시현

우리 마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많이 사신다. 그분들은 마을에서 축제를 해도 잘 참여하지 못한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모님께서 휠체어에 태워 마을 축제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휠체어를 미는 바람에 어깨와 허리에 담이 들어 병원에 다니신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전동휠체어’가 나왔다. 온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터에도 가고 팔죽을 사드시러 나오시기도 한다. 버튼 하나만 움직여도 두 사람 몫을 척척 해내는 전동휠체어를 보며 생각만 바꾸어도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배려하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다. 무심코 지나치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러려니 하고 불편을 감수했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너무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었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 어린이들의 체형에 맞게 손잡이를 낮게 하여 키가 작은 아이들도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다. 가끔 아빠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아빠의 바지 벨트를 꼭 움켜쥐었던 생각이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품의 재활용을 위해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 라벨 등 포장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상표 등이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깔끔하게 떼어 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 연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환경오염을 막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음료 회사들과 환경부에 직접 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에는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병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과 ‘플라스틱병에 접착제를 조금만 사용하고 뚜껑과 몸체의 재질을 같게 해서 재활용이 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회사는 페트병 라벨을 없앤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듯싶었지만 깨끗한 물이라는 상징성이 담겨 모든 생수 회사에서 라벨이 없는 투명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페트병 디자인을 바꾼 게 멋지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갈 때 사용하는 ‘큐브드럼’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 물통이

없었을 때는 무거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10km나 되는 거리를 오고 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 약 1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족한 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인도 지역 등에서는 부족한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곳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니 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이런 힘든 일을 한다. 먼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갔다가 물을 채워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큰일이다.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거나 들고 그 먼 길을 되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큐브드럼이다. 물을 담고 로프를 가운데 걸어 리어카처럼 끌고 오거나 밀고 오는 것이다. 그 전보다, 더 많은 물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이런 ‘착한 디자인’이 더욱 많아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배려와 편리함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싶은 꿀벌 아피스에게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을 읽고

군북초등학교 2학년 빈지윤

꿀벌 아피스에게

안녕! 아피스야. 나는 지윤이라고 해. 오늘 너에 대해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읽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태어나서 날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밥을 먹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깨끗이 치우고, 네가 머물렀던 낡은 밀랍 뚜껑도 정리하며 새로운 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하잖아. 그리고 애벌레도 잘 돌보고 여왕벌이 2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엄마처럼 먹이도 먹여주며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보살펴 주잖아.

아피스야! 너는 조그마한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정말 궁금하다. 한편으로는 네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속상해. 너는 나처럼 어리고 약해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걸 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 나는 가끔 내 방 정리도 하기 싫어서 짜증을 낸 적도 많아. 그런데 너는 네 삶의 전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아낌 없이 내어주잖아. 너의 그런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의 게으른 생활을 반성하게 돼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아피스야! 너는 날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 25일째 하늘을 날 수 있다며? 네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은 어떨까? 하늘과 바람과 공기의 향기가 가득한 꽃들을 보고 마치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 그리고 엄청 설렜을 것 같아. 나도 너의 그 짜릿한 설렘이 느껴져. ‘윙윙’ 하늘을 동그라미 그리듯이 나는 너의 모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두둥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너무 기뻐 아름다운 꽃 속에서 꽃향기를 가득 머금고 배불리 꿀을 따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는 너를 상상하고 있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와.

아피스야. 행복하지? 너는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하고 활짝 피었다 시든 꽃잎처럼 35일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산 너에게 박수를 쳐

주고 싶어. 그리고 칭찬 스티커도 주고 싶어. 아피스야! 아직도 나는 너의 삶이 너무 아쉬워. 가끔 길을 걷다가 꿀주머니에 꿀을 가득 채우고 있을 또 다른 아피스를 만나면 너를 만날 때처럼 반갑게 인사해주고 싶어.

꿀벌 아피스야! 이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너를 위해 하루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 나도 너의 그 멋진 부지런함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잊지 않고 너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게. 아피스야! 우리 오늘 밤 내 꿈속에서 만날까? 너를 떠나보내기에 나는 너무 아쉽고 서운해. 꿈속에서 우리 만나면 꽃밭에서 배불리 꿀을 먹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자. 그때에는 내가 너를 아기처럼 잘 보살펴줄게. 알았지? 오늘 밤 꿈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까지 안녕.

- 2022년 8월 3일 꿀벌 아피스가 보고 싶은 지윤이가 -





생각이 착한 손잡이를 만든다!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를 읽고

용호초등학교 3학년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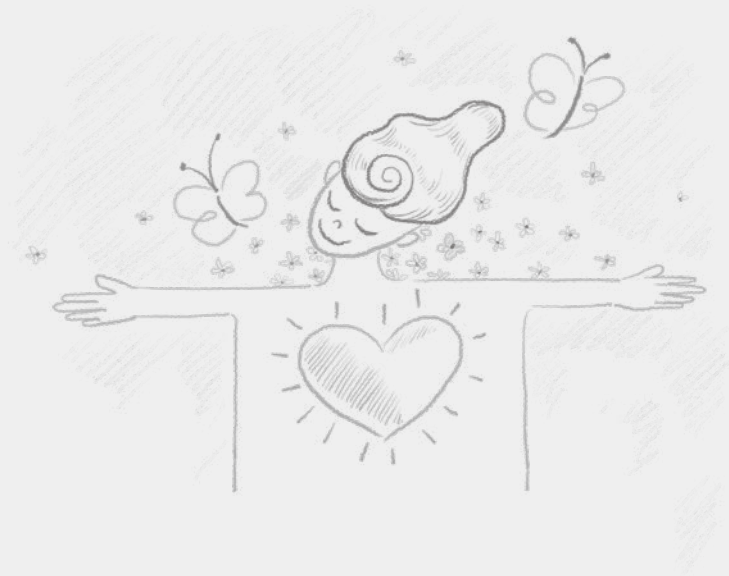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착한 손잡이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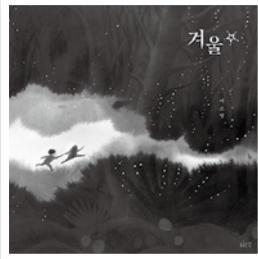
책의 제목만 보았을 때는 ‘착한 손잡이가 뭐지? 그런 게 있었나?’ 궁금했는데 읽다 보니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디자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디자인들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디자인의 배경에 대해 왜 그런 디자인들이 생겨났는지 알려 준다.

교통약자 및 노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나 박물관에 유물의 모형을 만들어서 만질 수 있게 하고 음성 안내가 되는 버튼을 설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디자인이다. 처음에 ‘가로등’의 잘못된 표기로 오해했던 ‘괄호등’은 괄호 모양의 등으로, 이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돕기 위한 안전 유도 장치의 디자인이었다. 손잡이가 뚫린 상자는 택배 기사님들이 힘들지 않고 조금 더 편리하게 상자를 옮길 수 있게 돕는 디자인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방음벽이나 유리에 부딪히지 말라고 이런 곳마다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 또한 디자인이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 강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가운데가 둥글게 뚫린 바퀴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 끈으로 연결해 쉽게 굴러 운반할 수 있게 한 디자인도 있다. 물이 부족해서 더러운 물을 마시면 병이 난다는 것을 알지만 살기 위해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빨대’는 미생물과 기생충을 99% 걸러주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특히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디자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파리가 그려져 있는 소변기의 디자인은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파리를 조준해서 화장실을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실험을 이끈 학자들이 ‘작은 스티커 하나로 큰 변화를 이끌었다.’라는 이유로 노벨상을 받게 된 사실도 참 흥미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위해 아이들이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라벨을 없애달라고 디자인을 요청했다는 것에서 나의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디자인이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도움이 될까? 편할까?를 고민하면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손잡이’ 같은 디자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나는 소소하거나 아예 특이한 디자인을 보면서 ‘저것은 무슨 생각들이 모여 디자인이 된 거지?’ 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들 것 같다. 아울러 나는 이 세상에 ‘착한 손잡이’가 더 많아지도록 더 나은 생각들을 떠올리도록 시도할 것이다.





겨울아! 나에게도 와줄래?

‘겨울 별’을 읽고

진영장등초등학교 3학년 박가영

「겨울 별」책을 읽기 전 책 표지에서 내용을 상상해보았다. 남자아이와 인형이 겨울 별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 보였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내용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몇 번을 읽고, 나만의 겨울 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지낸 겨울의 계절은 추운 거리에서 봉어빵을 호호 불며 먹고, 어묵 국물에 꼬치도 먹고, 트리 장식도 보고, 한 해도 마무리하고, 새해도 맞이하고, 호주머니 속에 손을 쿡 찢어 넣고 길거리를 다니고, 눈이라도 내리면 추운 것도 잊고 뛰어놀기도 하며 보냈다. 그래서 나에게 ‘겨울’은 따뜻함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였기에 행복이란 걸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며 지낸 것 같다.

책 속의 별이는 혼자 집에 남겨져 아빠의 메모지를 읽는 모습 속에서도 외로움이 많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외로움 또한 그동안 별이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만약 따뜻함 속에 자라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이 일상과 같고, 겨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오는 것이 싫게만 느껴졌을 것 같다. 동생이 없을 때 사랑을 받기만 하던 별이가 부모님이 먼 곳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고 동생과도 잘 지낼 것 같다. 밖은 너무 춥고 안은 따뜻하고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는 이 계절, 겨울은 포근함이 더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다.

책 속 겨울이도 외로워 보이는 별이를 위해 ‘함께 하는 겨울’을 선물해주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해준 것 같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의미를 알게 해주는 책이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겨울아! 나에게도 와줄래?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환경오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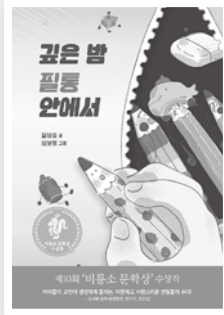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신양초등학교 3학년 박다은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는 환경오염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1초에 종이컵 하나가 태어나면 1초에 나무들이 사라지고, 1분에 새 옷이 태어나면 1분에 동물들이 사라집니다. 또 1시간에 컴퓨터가 태어나면 1시간에 곤충들이 사라지고, 하루에 새 에어컨이 태어나면 하루에 바다 동물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동물, 식물, 자연 모두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 물건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쓰레기가 재활용 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방법은 일회용 컵 대신에 계속 쓸 수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새 옷은 적당히 사고 옷을 수선해 다시 입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사용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 절약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사용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 컴퓨터가 그냥 버려짐으로써 자원 낭비와 함께 환경오염의 원인마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은 친지, 친구에게 기증하거나 중고나라에 기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 연필에 고마운 마음 먹기

‘깊은 밤 필통 안에서’를 읽고

진해냉천초등학교 3학년 심은성

툭! 부러진 연필을 연필깎이에 집어넣었다. 연필깎이에서 꺼낸 연필이 또 부러져 있었다. “아이 ~ 연필 왜 이래? 그냥 이거 안 쓸래.” 연필꽃이에 넣으려던 연필이 데굴데굴 굴러 책꽂이 앞에 떨어졌다. 책꽂이에는 엄마가 사둔 새 책이 서너 권 꽂혀 있었다. 그중에 나는 「깊은 밤 필통 안에서」라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필통 속 연필들과 지우개였다. 연필들은 주인 담이가 뽀뽀글글 글씨를 쓰고, 일기가 잘 안 써질 때는 연필 머리를 잘근잘근 씹어먹는다고 수다를 떨었다. 수학, 영어도 어렵고, 동시도 어렵다며 불만을 끝없이 토로했다. ‘연필들은 내 마음을 어쩔 이리도 잘 알까?’ 나도 수학, 영어, 동시가 너무 어렵다. 내 연필들도 내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하니 웃음꽃이 피었다.

어느 날 딸기 연필은 담이 친구 가영이와 온종일 함께하게 되었다. 동시도 짓고 수학 문제도 풀었는데, 꼭 마법 연필처럼 술술 잘되더라고 다른 연필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연필들은 딸기 연필처럼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적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도 일기를 쓸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생생하게 나타내었는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일기를 쓸 때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한데 가영이는 어떻게 글이 술술 써질까?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일기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졌다.

돌고래 연필과 새 연필은 서로 도와서 컴퍼스가 되었다. 돌고래 연필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새 연필은 원의 중심을 잡았다. 연필들은 컴퍼스가 되어 동그라미 그리기를 성공한 돌고래 연필과 새 연필을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해 주었다. 자신들도 컴퍼스가 되고 싶다는 부러운 마음을 이야기했다. 나도 1학년 때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언니가 참 부러웠다. 언니에게 한 번만 써보자고 부탁했지만 거절해서 너무 속상했다. 3학년이 되면서 컴퍼스를 써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떨리고 설렘는지 모른다. 그런데 생각보다 컴퍼스 그리기는 쉽지 않았다. 중심에 힘을 주고 동그라미를 똑바로 그리는 게 어려웠다. 원 그리기를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 엄청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래서 돌고래 연

필과 새 연필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지 알 것 같았다.

갑자기 연필에게 투덜거렸던 내 마음이 미안해진다. 연필들은 나를 위해 키가 작아지는 희생을 한다. 연필들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연필의 고마움과 헌신을 느낀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겸손한 태도로 친구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어떻게 하면 연필이나 내 물건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을까? 나도 담이의 연필들처럼 내 연필에게 이름을 붙여주니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또 연필뿐만 아니라 내 물건들을 쓸 때마다 항상 귀하게 사용하며 고마운 마음을 먹어야지.





뜻밖의 선물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를 읽고

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이은재

너무나도 더운 여름날, 소울이는 엄마, 아빠, 언니를 졸라 놀이터에 갔다. 한여름에 와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금세 지쳐 10분도 안 돼 소울이에게 집으로 가자고 한다. 소울이도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일어나려는데 저 멀리 아이스크림 차가 보였다. 그래서 소울이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가겠다고 한 후 아이스크림 차로 달려갔다.

아이스크림 차 위에는 다섯 가지 맛 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안내판이 있었고 목이 너무 말랐던 언니가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언니 소진이는 가장 달콤했던 때로 돌아가는 체리맛을 골랐고,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는 순간 가족들 주변으로 구름이 생기더니, 언니가 남자친구와 문자를 하고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먼저 고백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소진이가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아빠는 고민 끝에 가장 통쾌했던 때로 돌아가는 민트맛을 한 입 먹고 앞을 보았더니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바로 만년 대리!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먼저 승진한 동료들 부러워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으니 아빠는 그 순간이 가장 통쾌했던 것이다. 그다음 엄마는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는 초코맛으로 골라서 한 입을 먹고 앞을 보았더니 소울이와 소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기 때 혼자 일어나 아장아장 엄마에게 걸어오는 행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울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스크림은 소울이의 요거트맛 아이스크림이다. 왜냐하면 소울이가 가장 즐거웠던 때로 돌아갔을 때가 오늘이란 게 감동적이면서 뭔가 뭉클했다. 또한 가족들이 그걸 보고 마지막에 소울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더운 날씨에도 몬스터 상황극도 해주고, 열심히 뛰면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울이와 신나게 놀아주었다. 그런 가족들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소울이가 저런 멋진 가족을 가진 게 부러웠다.

우리 가족에게도 저런 신비한 기회가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우리 가족이 아이스크

림을 고른다면 아빠는 요거트맛을 고를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여수에 놀러갔을 때 아빠가 많이 즐겁다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체리맛! 엄마가 가장 달콤할 때는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다같이 침대에 누웠을 때가 너무 소중한 순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동생은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해보여서 초콜릿맛을 고를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이스크림차의 사장이었다라면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망고맛’ 아이스크림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다들 나를 귀엽게 봐주고 나에게 신경을 다 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젊으니 나랑 더 잘 놀아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엄마와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망고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럼 우리 동네 어디엔가 신비한 아이스크림차가 있는지 보러 나가봐야겠다.





지구에게 쓰는 편지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용호초등학교 3학년 장준영

안녕? 나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용호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준영이라고 해. 나는 오늘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서 너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려고 해. 나는 이 책을 읽고 한순간에 많은 것들이 태어나는데 동시에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중 나는 하루에 많은 에어컨들이 태어난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더울까 봐 에어컨을 사주셨어. 내 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 무척 더웠거든. 그 에어컨 덕분에 나는 이번 여름에 시원하게 내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에어컨을 사용해서 아주 시원하게 지낸 만큼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어. 에어컨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진다는 것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지.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먼 바다에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한반도 크기의 9배나 되는 엄청난게 큰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목숨을 잃거나 병들고 있대. 또한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바다의 새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대.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지구에 사는 동식물은 많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지구는 결국 사람밖에 남지 않은 쓰레기별이 되고 말겠지.

나는 새 떠난 산에서, 물고기 놀지 않는 강에서, 풀벌레 노랫소리 끊긴 들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구상나무와 긴꼬리수달과 푸른바다거북과 함께하는 지구별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마음을 담아 너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할게. 첫째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에어컨을 바깥 온도가 28도 이하일 때에는 켜지 않을 거야. 만약 에어컨을 켜더라도 25도 이하로 설정하지 않을게. 둘째 나는 우리 집을 둘러보면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는 꼭 빼놓을게. 셋째 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서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도록 할게. 넷째 나는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그때마다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서 청소하며 너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게. 다섯째 나는 낮은 층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게. 나 하나가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많은 친구가 같은 다짐을 한다면 넌 다시 깨끗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책에서 나오는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게! 지켜봐 줘! 그리고 항상 고마워!!



우리 모두 자유롭게

‘곰이 왔어!’를 읽고

제석초등학교 3학년 조윤진

만약 우리 마을에 곰이 왔다면 어떨까? 나는 갑자기 곰들이 내려와서 황당하고 화가 날 것 같다. 마음대로 우리 마을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곰은 덩치도 큰 데다 사납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과 사람의 노력으로 친해졌을 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해칠 줄 알았던 곰이 사람들과 친해졌으니 나의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곰들이 마을에 적응하면서 글 쓰는 법, 말하는 법, 예절, 하면 될 것과 안 될 것 등을 배웠다. 그렇게 사람들과 곰들이 친해져서 잘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곰들이 사람들도 먹어야 할 꿀을 다 먹어서 사람들이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사야 할 것들을 적어 놓은 데에 ‘곰보다 먼저 살 것 <꿀>’이라고 적어 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곰이 불편하고 싫다고 구역을 정해서 곰이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을 구별해두었는데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곰들을 쫓아내는 건 나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다고 마음대로 쫓아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고,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옳지 않고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다.

곰들이 사람들을 불편해하면서 결국 사람들과 곰들은 싸우는데 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론 이 땅은 먼저 태어난 동물들의 땅이지만 무조건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살았다고 자기 뜻은 아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도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곰과 사람들이 함께 살던 때와 마지막 장면을 비교해 보면 원래는 화기애애했던 곰들과 사람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겨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싸우니까 슬프고 화도 난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뿐이다. 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은 잘 안 보인다. 장애인들은 우리가 가두지도 않았는데 왜 잘 안 보일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같으면 길가가 울퉁불퉁하고 계단도 많아서 다니기 불편할 것이다. 어쩌면 장애인과 곰이 같을 수도 있다.

곰, 사람, 장애인, 외국인, 길고양이, 비둘기, 모기도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 누구도 다른 존재를 쫓아내고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다른 존재를 쫓아내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말이다.



깨끗한 지구를 위한 나의 작은 실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가야초등학교 3학년 최은우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달랐다. 제목만 보고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럴수록 자연은 계속 사라져 결국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책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머니가 계신 동해로 여행을 갔었다. 투명한 바닷속에서 작은 물고기들도 보고 꽃게도 잡고 소라도 땀다. 그런데 잠깐 옆으로 눈을 돌리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해변 한구석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예쁜 바다가 망가지고 있었다. 그걸 보니 쓰레기 바다에서 그 예쁜 물고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이 책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대로 간다면 나무와 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 마당 잔디에 숨어있는 귀여운 청개구리를 만날 수 있을까? 1초 만에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또 1초 만에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과연 더 행복할까? 새 자동차, 새 컴퓨터, 새 핸드폰, 예쁜 새 옷을 가지는 대신 자연과 동물들이 없는 쓰레기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지구를 쓰레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기, 양치할 때 물 틀어 놓지 않기. 1초 만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우리 지구! 1초만 생각하고 실천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나와 가족들, 친구들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쓰레기별이 아닌 깨끗한 자연에서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의 실천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졌다.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이 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실천도 지구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나무와 동물들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할 것이다! 쓰레기별아 잘 가~ 깨끗한 별아 어서 와 반가워!



꼭 우리 지구를 지키자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를 읽고

웅양초등학교 4학년 이영민

요즘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인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책을 선택하여 읽었다. 나는 ‘지구별은 바빠요’라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지구별은 바빠요’라는 말이 우리가 지구를 바쁘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누구랑 살까요?’라는 말이 나중에는 쓰레기랑 산다는 말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그리고 책에 나온 것과 같이 ‘1초에도 1분에도 한 시간에도 동물들이 사라지고 새 물건들이 태어납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나는 너무 많이 태어나고 너무 많이 사라져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 나도 곤충들을 죽인 적도 많고 물건을 더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새것을 사서 사용 안 한 게 너무 지구별에게 미안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곤충들한테 미안해져서 앞으로는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도 일 년에도 꽃이 사라진다. 6.. 29.. 280... 이렇게 많이 꽃이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왜 새 물건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친구가 산 것을 보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주 들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지 않으려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나는 지구별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새가 떠난 산에서, 물고기가 놀지 않는 강에서, 풀벌레 노랫소리 끊긴 숲에서 또, 바다 생물들 구멍 집 떠난 갯벌에서, 들꽃들 소풍 나오지 않은 언덕에서 동물들 이어달리기를 볼 수 없는 초원에서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곳에서 못 살겠다. ‘사람들은 10년, 50년, 백 년 뒤 누구랑 놀까요?’라는 말이 너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금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중에는 누구랑 놀까? 혹시 단 하나뿐인 쓰레기별에서 놀까? 아니면 우리가 지구를 살려서 공기 좋은 지구별에서 살까? 나는 공기 좋은 지구별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끗한 지구별에 살면 좋겠다. 모두가 열심히 지구를 아끼면 구상나무도 야자수나무, 맹그로브 나무도 몇 그루씩 사라지지 않고 또 청개구리도 열목어도 긴꼬리수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힘을 합치면 분명 우리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진동초등학교 5학년 박수현

이번 여름방학 권장 도서 중, 「몬스터 차일드」라는 책이 있었다. 책의 제목을 보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 읽어보기로 했다. 책의 표지에는 한 여자아이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날카로운 손톱과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손을 올리고 있었다. 왜 이 여자아이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을지, 왜 마치 늑대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책을 펼쳐 읽어보았다.

이 책의 주인공 6학년 하늬와 2학년 산들이는 MCS(돌연변이 종양 증후군)로 인한 친구들의 따돌림과 놀림 때문에 시골로 전학을 오게 된다. MCS는 발작을 일으키고 맹수 같은 모습으로 몸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MCS를 괴물로 취급한다. 하늬는 전학 온 학교에서 자신과 같이 MCS에 걸린 연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연우는 변이를 억제하는 하늬와 달리, MCS 증후군을 뽀뽀하면 다 보여주는 아이이다. 그런 연우 덕분에 하늬는 완전히 변이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변이됐을 때의 해방감과 쾌감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하늬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길을 걷게 되고, 자신이 몬스터 차일드라고 밝히게 된다.

이 책에 나온 MCS 당사자들은 잘못된 것 없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간다. 원치 않은 병에 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야말로 제일 큰 문제다. 여기서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 성별, 나이,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 같다.

「몬스터 차일드」에서 괴물을 상징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신체를 가졌거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단지 보통의 기준선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손가락질한다. 과연, ‘보통’의 기준선에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맞는 것일까? ‘보통’의 기준선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게 맞는 것일까? 어쩌면 진짜 몬스터는 보통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못된 마음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 아닌 사람 백정

‘강을 건너는 아이’를 읽고

김해신명초등학교 5학년 박준현

내가 이번에 읽은 책은 「강을 건너는 아이」이다. 책 표지의 강렬한 바탕색이 너무 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그중에서도 신분이 정말 낮아서 사람 아닌 사람으로 불린 백정들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길석, 백비, 장쇠, 육손, 복레가 있다. 주인공인 길석은 고기를 썰는 솜씨가 좋았다. 그래서 길석은 어릴 때부터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양반들이 길석을 찾아와서 비싼 돈을 주고 소고기를 떨어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임금님은 백정들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더 이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던 길석은 이때까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농사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살다가 막비와 결혼해서 장쇠를 낳고 장쇠를 잘 키우기 위해 길석은 다시 도살에 손을 댄다. 그리고 도살하는 것을 사또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장쇠는 자신의 아버지 길석의 옛 친한 친구인 육손에게 가게 된다. 평소 활을 잘 쏘던 장쇠는 활을 정말 잘 쏘는 육손에게 몇 년 동안 활쏘기를 배워 혼자서 마흔 마리의 호랑이를 잡고 임금의 명으로 천한 신분에서 벼슬을 받아 임금 바로 옆에서 임금을 지키는 호위무사인 검사복이 되고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나는 지금까지 사회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신분은 바뀔 수 없다고 배웠는데 마지막에 장쇠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백정에서 무사 중에 최고의 직업인 검사복까지 되다니 정말 신분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다 읽고 나니 왜 이 책의 이름이 ‘강을 건너는 아이’인 줄 알 것 같다.

늘 사회 공부하면서도 조선시대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가 ‘신분 제도’이다. 모두가 똑같이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 만큼 살다가 죽는데 굳이 왜 신분까지 따져가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까? 아마도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상인쯤 되었을 건데 나이가 같아도 반말을 하지 못하고 양반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고 예쁜 여자가 있어도 신분 때문에 결혼을 못 하면 정말 살기가 싫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쇠는 상인보다도 훨씬 낮은 신분인 백정이었는데 포기도 하지 않고 참고 참으며 결국에



는 양반의 직업보다도 훨씬 좋은 직업인 검사복이 되다니 정말 놀랍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호랑이를 한 마리도 잡는 것이 힘든데 장쇠는 혼자서만 호랑이를 40여 마리나 잡았다니, 생각해보면 검사복 정도의 벼슬은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양반들은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도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높은 신분 중에서는 도살을 하는 사람이 없다. 장쇠의 아버지인 길석처럼 신분이 가장 낮은 백정들에게만 도살을 시키고 돈을 좀 주고 엄한 벌은 백정이 모두 받는다. 이런 일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를 싫어 한다.

앞으로 다시는 신분 제도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 ‘너랑 나랑은 급 차이가 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을 보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을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나 간절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몇 년 뒤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자라면서 이 책을 다시 여러 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되어줄 것이다.



잉어처럼 걱정이라는 물살을 헤엄칠 수 있는 사람

‘그때 너 왜 울었어?’를 읽고

통영초등학교 5학년 박현민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길 원한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순간이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면 정말 억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잘 살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태어나 매일매일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 「그때 너 왜 울었어?」의 강우와 지영이도 저마다 다른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 상처는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 아팠다.

강우와 지영이는 외롭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낀다. 강우는 가족 중에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인 것 같다. 지영이는 자신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엄마 때문에 외롭다. 결국 강우와 지영이 둘 다 진심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한다. 강우와 지영이처럼 나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학원에서 나 빼고 서로 같은 학교인데, 나만 빼고 자기네들 학교 이야기를 하며 나를 외로움이라는 방에 가두어 둔다. 그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다.

“힘내! 포기하지 마!” 강우와 지영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를 통해 내면의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 두 아이 모두 잉어가 되고 싶어 했다. 강우는 아빠의 폭력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하는 반항심이 생겼고 지영이는 화장은 안 된다는 엄마의 반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했다. 둘 다 어른이 되어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싶어 한다. 나는 아직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게 없지만, 미래에는 생길지도 모른다.

지영이는 미진 아줌마네로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강우를 봤다. 그 사건 후로 강우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소문을 퍼트린 게 지영이라고 생각하여 지영이를 투명 인간 취급하다 못해 시비까지 건다. 내가 강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일단 화가 나도 참고 친절하게 지영이에게 “네가 내 소문 퍼트렸니?”라고 물어볼 것이다. 내가 추측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크니까 단정 짓지는 않을 것 같다. 지영이가 소중한 존재라면 더 그래야 한다.



‘근데 조강우는 슈트 입고 조리 신고, 산엔 왜 온 거야?’ 강우의 가정사를 알기 전 지영이는 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의 강우 차림을 궁금해했다. 급하게 나왔다고 해도 굳이 산에는 왜 왔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강우의 가정사를 알게 된 후 지영이는 그때도 가정폭력을 당해 급하게 조리를 신고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더 터놓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중요하다.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질 거야’ 과연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걱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편히 지낼 수 없게 된다. 강우와 지영이 모두 지금의 걱정들은 날리고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물론 내게도 언젠가는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오하닉 몬스터 차일드!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창녕초등학교 5학년 백승리

살짝 올라가 있는 입꼬리와 매서운 눈,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의 얼굴이 이 책 표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 강렬한 이미지에 이끌려 내가 선택하게 된 이 책의 제목은 몬스터 차일드이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은 채 나는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6학년 하늬와 2학년 산들 남매는 MCS(몬스터 차일드 증후군)로 인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전학을 다녔었고 이번에는 먼 시골로 전학을 오게 된다. MCS는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발작을 일으킨다. 동시에 괴력이 생기면서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발톱이 돋아나는 등 짐승의 모습으로 변이하게 되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후군이다. 나는 이 가상의 MCS는 작가가 우리 중 누구나 현실에서 가지고 있을 크고 작은 장애를 빗대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MCS를 숨기고 싶어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피해왔지만,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MCS인 연우를 만나게 된다. 보통 MCS들은 자신이 MCS라는 것을 숨기려 하는데 연우는 달랐다. 왜 MCS임을 숨기지 않고 밝히는 걸까? 하고 연우가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면서도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조금은 연우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연우는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일쑤였다. 차가운 시선과 멸시는 연우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것마저도 연우는 덤덤히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연우가 무척 불쌍하고 안타까워 책 속으로 들어가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늬는 하룻길에 발작을 일으킨 연우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자신도 발작을 하게 되고 난생처음으로 완전히 변이한 모습으로 연우의 아지트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토록 변이를 두려워하던 하늬는 완전한 변이 후 연우의 도움으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한다. 같은 증후군을 앓고 있긴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연우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늬의 엄마도 그래 주지 못했던 것이기에….



하늬와 산들은 도시에서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의 소개로 강규철 소장님을 찾아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연우와 승아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늬와 산들은 부드럽고 편하게 대해주는 소장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이내 훈련소의 치료과정에 적응하고 연우, 승아와 친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산들이와 승아가 함께 놀러 나갔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헤지라는 아이가 오빠 연우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승아가 그만 화가 나서 헤지네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때 승아가 과수원에 설치된 밧에 걸렸고, 출동한 경찰들이 쏜 마취총에 맞아 정신을 잃은 산들을 업고 급히 도망쳐 왔던 것이다. 경찰들은 승아의 존재를 파악했고 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소장님과 연우 그리고 승아는 자수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택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작가는 연우의 편이었을까?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겁한 마무리여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하늬에게 MCS는 숨기고 싶은 장애이면서도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어떠한 장치였던 것 같다. 하늬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장치로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 마주했던 하늬의 표정이 왜 그렇게도 당당했던 것인지 책을 다 읽고 난 뒤 알게 되었다. 자신이 MCS인 것이 들킬까 봐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던 하늬, 연우에게 쏟아지는 나쁜 평가들이 곧 자신에게도 매겨질까 두려워했던 하늬는 이제 없다. 하늬는 무척 단단해져 있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마주한 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느끼는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한 줄로 그 당당함이 모두 설명되었다.

“난 오하늬 몬스터 차일드야”



용기 있는 내가 되기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진해냉천초등학교 5학년 이솔

나는 소심하다. 처음 보는 친구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가슴이 쿵쿵쿵 뛰고 얼굴은 토마토가 된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생각도, 목소리도 ‘핑’ 하고 사라지는 듯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자기소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왔다. 부들부들 떨리고 닭살이 돋아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똑똑 눈물만 흘렸다. 그런 나의 소심한 모습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창피하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소심함을 꼭꼭 감추고, 일부러 밝게 웃으려고 노력한다.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더욱더 말하려고 애를 쓴다.

「몬스터 차일드」책에서는 그런 나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 아이는 바로 몬스터 차일드인 하늬이다. 이 책에 나오는 가상의 질병인 몬스터 차일드는 돌연변이 종양 증후군이다. 보통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사이에 변이가 일어나고 어린아이를 괴물로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늬와 동생 산들이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늬는 동생 산들이의 발현으로 인해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하늬는 얼마나 떨렸을까? 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병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진 않았을까? 아! 하늬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떨린다. 나도 하늬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동네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이미 다른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는데, 나의 소심함 때문에 친구가 없을까 봐 너무 두려웠다. 혹시 나의 소심함을 들킬까 봐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 하늬는 전학 간 학교에서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연우를 만나게 된다. 반 친구들을 통해 연우가 몬스터 차일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우가 몬스터 차일드로 변이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자신도 몬스터 차일드로 변이하게 된다. 그 모습에 놀란 하늬는 기절하게 된다. 그 후 하늬는 연우 앞에서는 자신이 몬스터 차일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되고 연우와 신나게 나무를 타며 놀기도 한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하늬의 기



분은 얼마나 상쾌했을까?

나도 소심한 모습을 숨기려고만 했다가 친구 지연이를 통해 조금 달라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지연이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나에게 학예발표회 때 함께 댄스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지연이었다. 걸그룹 여자친구의 〈밤〉을 함께 연습하고 공연했는데, 그때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했다. 지연이는 지금도 나의 단짝이다. 나의 소심한 성격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서 지연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소심한 성격은 그대로이다.

책을 통해 몬스터 차일드인 하늬는 소심한 나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었다.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한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하늬처럼 나도 무섭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실수도 기꺼이 인정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늬야, 나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용기 있는 내가 될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관동초등학교 5학년 허근영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있다. 나보다는 어린데, 바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다. 집에 있다 보면 종종 그 아이가 걷기 연습을 하며 혼나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나는 이전에는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매우 신기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밖에서 그 아이를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뭔가 나와 다르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마음에 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웬지 같이 놀자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 친구가 싫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이야기를 걸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겠다.

이 책의 세계에는 MCS(Mutant Cancerous Syndrome) 돌연변이 종양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존재한다. 이 병에 걸리면 발작을 일으키며 괴물이 된다. 온몸은 털로 뒤덮이고 손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생긴다. 또 날카로운 이빨과 엄청난 괴력, 날렵한 몸놀림을 가진다. 사람들은 이 병을 끔찍하고 무섭게 여긴다. 그래서 MCS를 ‘Monster Child Syndrome, 괴물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주인공 하늬는 MCS를 가지고 있는 환자이다. 동생 산들이 또한 MCS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MCS를 무서워해서 언제나 약을 먹으면서 발작을 억제하고, 혹시나 발작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전학을 갔다. 그렇게 여러 번의 전학을 간 후 하늬는 MCS 치료센터가 있는 시골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또 다른 MCS를 가진 연우라는 친구를 만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우는 보통 MCS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약을 먹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의 농작물과 가축을 훔친 범인으로도 의심받고 있었다. 치료센터에서 하늬는 방사선치료와 약물 치료 대신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또 MCS 때문에 생기는 발작된 모습은 괴물이 아닌 존중해줘야 하는 ‘또 다른 나’라는 사실도 배운다. 그리고 하늬는 원장님의 아들이 연우라는 것을 알았



고, 사람들의 농작물과 가축을 훔치는 범인이 연우의 아는 동생인 승아인 것도 알게 되었다. 부모님에게 버려져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넷은 점점 친해진다.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훈련소 원장님과 연우와 승아는 잡혀갔지만, 하늬는 다시 전학을 보내려는 엄마에게 반대하고 원장님과 친구들을 구해낸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MCS라는 질병으로 표현한 것 같다. 특히, 신체가 불편한 장애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ADHD 친구들이나 자폐가 있는 친구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장애를 가져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싫어하고 잘 받아주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만약 MCS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같은 반이었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 온몸이 괴물처럼 변하고 힘도 매우 세지는데, 이 친구가 마치 진짜 괴물처럼 느껴져서 학교에 가기 싫을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이 광경을 봐야 했으면 너무 싫을 것 같다. 부끄럽지만 결국 나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그랬듯 대부분의 사람도 머릿속으로는 장애인을 싫어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장애인의 다른 모습을 의식하며 보게 되거나 그 모습을 보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자꾸 도움을 줘야 해서 싫기도 하고, 방해받기 싫어서 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을 많이 차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부터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장애인을 차별한다면 의미가 없다. 장애인은 부족하고 혼자 있듯이 우리와 그냥 조금 다를 뿐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나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차별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를 알아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고 낯선 시선이 아닌 따뜻하고 친근한 시선을 가지려 노력하고,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차별과 편견, 그리고 판단과 말

‘몬스터 차일드’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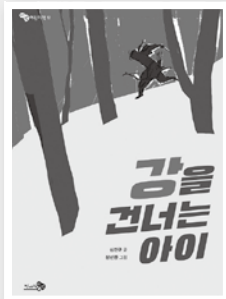
호암초등학교 5학년 허서윤

이 책은 가상의 별을 주제로 편견과 차별을 풀어쓴 판타지 소설이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험처럼 주인공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유를 찾아 나간다는 설정이 흥미로워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 사람들은 ‘MCS’라고도 부른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공격성이 강해져 마치 짐승의 모습처럼 변한다. MCS 환자인 주인공 하늬와 산들이는 병을 숨기고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하늬는 평범해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곳에서 정체를 숨기지 않는 돌연변이 연우를 만나 자유를 꿈꾸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늬에게 의심스러움이 가득한 하루가 온다. MCS에 걸리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마치 짐승처럼 변하는데 연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진다. 거기에서 MCS 자립훈련소 소장님은 MCS가 병이 아니라고 한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질 때쯤 농장에서는 정체불명의 괴물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모두 연우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빠는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것 같다. 뭐만 하면 부정하고 현실적으로 보고, 나는 그런 아빠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 어쩌면 가끔은 현실성 있는 조언과 행동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도 난 시선보단 이해,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늬와 연우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한 번의 기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니까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는 가상의 병, 편견과 차별이 무슨 조합인지 책을 읽기 전 표지를 보고 도대체 어디가 괴물이라는 건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몬스터 차일드 증후군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닐까? 자연적인 현상을 병이라 이름 짓고 사람들이 믿는 거라면? 만약에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온몸에 털이 나고 공격성이 강해져서 다른 친구들이 병이라고 하면 난 믿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겠다. 나의 서투른 판단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상처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강을 건너는 배는 내가 만든다

‘강을 건너는 아이’를 읽고

남지초등학교 6학년 김민석

누가 자신의 미래를 정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기에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 백정의 아들이자 왕의 호위무사인 ‘검사복’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장쇠’이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장쇠, 나라에서 금지되어있는 일을 하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아버지, 장쇠는 아버지의 친구인 육손 밑에서 자라게 된다. 육손은 시대의 골칫거리인 호랑이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의 밑에서 장쇠는 사냥과 활쏘기를 배우면서 점점 호랑이를 잡는 나랏일을 하는 ‘착호갑사’의 꿈을 가지게 된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나라에서 인정하는 최강 사냥꾼 ‘착호갑사’의 꿈을 이룬다. 차후 왕을 호위하는 ‘검사복’ 자리에까지 오른다. 이 책 제목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어린 단종이 왕에서 내려오고, 백정의 아들 장쇠가 검사복이 되는 그 신분의 강.

나의 아버지는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민이다. 원래는 회사원이었지만, 연로하신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회사 문제 등으로 귀농을 결정하셨다고 했다. 그럼,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나도 농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난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난 책 읽기와 축구를 좋아하고, 공부도 꽤 잘한다. 지금은 전교 회장도 하고 있다. 나의 꿈은 계속 변했지만, 현재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의사나 약사가 되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다. 장쇠가 한 말 중 ‘편히 넘을 수 있는 험한 산은 없다.’라는 말을 나도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김민석이 될 것이다.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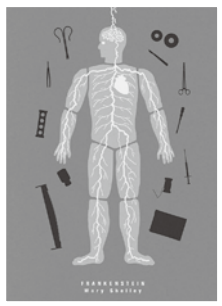
글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청소년 대상**

- 042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는 것
창원남산고등학교 2학년 송석현

경상남도교육감상**청소년 최우수**

- 044 삶은 꿈, 그럼에도 GO
거제장평중학교 2학년 김도연
- 046 추억의 향기
내덕중학교 3학년 지주현
- 048 시간 선택의 고민 앞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3학년 방수진
- 050 사람의 삶에, 사람이 사랑을
김해율하고등학교 3학년 함예빈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는 것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창원남산고등학교 2학년 송석현

먼저 청소년 선정 도서 중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작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해외 고전 소설이자 이전에도 머리에 나사가 박힌 괴물의 모습을 본 적 있는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작가 메리 셸리의 배경이 나와 있었다. 메리 셸리는 당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 비교적 많은 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시인이자 유부남이었던 퍼시 비시 셸리와 사랑에 빠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제네바에서 시인 바이런을 만나 친분을 쌓으며 괴기 소설을 써보자는 바이런의 제안이 모티브가 되어 이 작품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으며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 사랑을 위한 도피 생활을 하며 어두운 이면을 많이 경험했다. 가족들 또한 잇따른 죽음을 당하며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혹시 이런 복잡한 감정이 영향을 미쳐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소설은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진행되는 순행적 구조로 이어졌다. 소설을 읽기 전 프랑켄슈타인은 당연히 괴물의 이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과학자의 이름이었고 시작부터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프랑켄슈타인이라 하면 괴물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는데 사실 괴물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다. 이 충격은 나를 소설에 더 빠져들게 한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다.

이 소설의 전반의 내용은 고위층 인사의 아버지 밑, 없이 자란 빅터는 인정 깊은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자연 철학에 깊이 빠져 결국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생명 창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빅터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형체를 보고 소름이 끼치고 역겨운 모습이라며 도망치게 된다. 피조물인 괴물은 인간 세상에 나가지만 그의 외형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차별과 증오가 끊이지 않았다. 그 후 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인간과 교류를 위해서 그들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곳의 문학책을 읽으며 언어와 역사, 문화 그리고 감정을 배운다. 오두막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저런 가정을 갖고 싶어 하고 결국 그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간절함은 그 가족에게서도 무참히 짓밟혔다.

전반의 내용을 보면 괴물을 창조한 빅터는 무책임하게 도망쳤고 괴물은 자신이 원치 않게 세상에 나와 이유 모르는 증오에 시달렸다. 여기서 괴물의 모습은 마치 인간의 특징과도 유사했다. 인간 또한 자신이 원해서 세상에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축복받으며 태어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괴물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창조자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여기서 빅터는 피조물의 앞에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한 채 도망가기 바쁜 모습에 화가 났고 괴물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소설의 후반의 내용은 괴물이 자신의 창조자이었던 빅터를 찾아 나서고 그 길에서 빅터의 동생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빅터를 만난 괴물은 그에게 동반자를 만들어 주면 인간과 떨어져 조용히 살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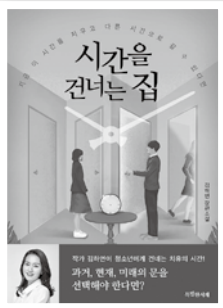
다고 다짐하며 빅터에게 또 다른 괴물을 만들게 한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 수 없었고 이에 분노한 괴물은 영원한 복수를 다짐한다. 그 후 빅터의 주변 인물이 모두 죽음에 처하며 빅터 또한 그 괴물을 파괴하기 위한 복수극이 시작되었다. 소설 시작의 편지 시기가 되어 북극에서 빅터는 끝내 괴물을 파괴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고 이를 발견한 괴물은 선장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며 빅터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이유를 정당화시키면서 동시에 후회하며 자신 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후반의 시작에서 자신의 창조자를 다시 찾으려는 괴물의 모습은 자신의 탄생 이유를 고민하고 존재 의미를 찾는 인간의 특성처럼 보인다. 마치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안 인물이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를 필연코 찾으려 한다. 괴물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탄생에서부터 창조자한테 들은 존재의 부정은 결국 분노로 이어져 창조자가 사랑한 인물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 아닐까 싶다. 인간들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못 찾아 방황을 하거나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목적을 가지고 존재 의미에 답을 찾아간다. 하지만 괴물은 그렇지 못하였다. 만약 빅터가 지레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고 괴물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괴물도 인간처럼 제대로 된 감정과 인성이 형성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빅터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그의 주변인이 희생되었고 마지막에는 괴물 또한 자신의 지난 행동을 회개하며 자신의 짓 또한 결코 옳지 않았음을 안다.

책을 다 읽고 빅터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이 과연 윤리에 위반된 일일까 이 작품을 보고 난다면 위반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과학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빅터와 같이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하며 빅터의 생명 창조와 같은 행동이 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원래 이 책은 그저 호러나 SF 소설에 국한된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책을 읽기 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 줄 알았던 나의 모습에서 이 책을 읽게 되어 한편으로 지금 시기에 읽기 적절한 문학작품이었던 것 같다. 나오는 인물과 그사이의 갈등에서는 독자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고 큰 여운이 남는 책임은 확실하였다. 프랑켄슈타인과 관련된 많은 작품이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명한 뮤지컬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접해보며 소설이 아닌 다른 예술로는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랑켄슈타인, 작가의 생활도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았던 작품으로 때론 빅터의 입장에서 때론 괴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몰입에 끊임없이 빠지며 읽은 것 같다. 두 인물의 모습에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결국 두 인물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 이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어떤 발전을 가져가느냐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기에 이 작품은 두 인물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성찰과 반성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주는 것 같다. 또 소설의 특성상 이러한 인물들의 행동들은 이 작품을 한층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든 중요한 역할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끝으로 선정도서에서 이 책을 만나 읽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다시 감사함을 느낀다.



삶은 곁, 그림에도 GO

‘시간을 건너는 집’을 읽고

거제장평중학교 2학년 김도연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하고 과거를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현재가 너무 괴롭거나 힘들어서 그냥 빨리 시간을 넘겨버리고 싶어 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저 마음속으로 꿈꾸었던 시간 여행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중 무엇을 선택할 것 같나요? 만약 현재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나름대로 잘살고 있을 것일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1초의 고민도 없이 현재를 택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만의 아픔과 걱정 때문에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을 고민하는 아이들 4명이 의문의 하얀 운동화를 신고 ‘시간의 집’에 들어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책 속 4명의 주인공인 자영, 강민, 이수, 선미는 어느 날 상표도 붙어 있지 않은 하얀 운동화를 갖게 된다. 이 하얀 운동화는 특별했다. 이걸 신은 사람들만 보이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의 집이었다. 이 집에는 아픔이 있는 아이만 선택받아 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아이는 자영이다. 자영이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왕따로 극심한 학교 폭력을 겪고 있다. 자영은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었기에 혼자 끙끙대고 있다. 다음은 강민이다. 강민은 이 시간의 집에 두 번째로 오게 되었다. 다시 오게 된 복잡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이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의자에 테이프로 칭칭 감긴 채 자신의 아빠가 죽는 모습을 처참하게 직면하고 엄마는 집을 나간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지금 이수의 엄마는 부잣집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라 자신에게는 신경도 못 써주고 그 와중에 유부남과 만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선미는 엄마가 채장암 말기라 이제는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질지 괜히 걱정되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31일에 4명의 아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 1개의 문을 선택해야 한다. 4명의 아이들이 다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며 서로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신경 써 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입장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4명의 아이들이 다 함께 시간의 집에 모이면 바깥세상의 시간이 멈춘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네 명만 모이면 학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한 채 하루종일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다.

만약 내가 책의 주인공들처럼 시간의 문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 현실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꽤 흥미로운 고민이었다. 그 고민 끝에 나는 미래로 결정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4년을 더 죽어라 공부해야 한다는 건 너무 끝이 없는 터널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좋지 않은 성적이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미래도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의 15살 나에게 말기고 나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작가는 이 책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반어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쉽게 돌아가거나 넘어가지 않으니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전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위로도 해줄 것 같다.

만약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1초의 고민도 없이 현재를 택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 내면의 고민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자신의 아픔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과거나 미래로 돌아가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신의 현재 아픈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로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저 또 다른 문을 찾으려 들 것이다. 책 속 문장 중 ‘인생은 쓸쓸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해. 삶은 ‘苦’지만, 그럼에도 ‘GO’ 해야 하는 거야’라는 문장이 있었다. 둘다 고고로 연결 지은 점이 인상 깊었고 이처럼 나도 살면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꼭 이겨내고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당당하게 현재를 선택할 날이 오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가의 의도가 이런 당찬 의도를 맺게 도와주는 것이라면 성공하신 것 같다.

이 책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막 되돌릴 수 없으니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며 추천해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애뜻해졌다. 되돌릴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지금의 현재를 후회 없고 그 무엇보다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가고 싶다.



추억의 향기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를 읽고

내덕중학교 3학년 지주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삶이 사라지는 듯한 상실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더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추억 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살아갈 때면 그 사람이 미칠 듯이 그림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더군다나 그 사람을 막 마음속에 품었다면 더더욱.

늘 곁에 있어 주던 존재의 부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이면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존재를 상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꼭 쥐고 있다. 그것은 물건이 될 수도,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루다는 슈크림 빵을 먹으며 웃던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미소 옆에 그려진 엄마의 눈주름도 기억해냈다. 엄마를 잃은 루다에게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슈크림 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마음속에 기억해두고도 꺼내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추억을 꺼내어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쨌거나 소중한 존재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자신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추억 속을 여행하다 보면 저도 현실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존재의 부재를 머리 구석에 밀어 넣어 두고 단단히 걸쇠를 잠근다. 그리고 그 존재가 생각 속에 불쑥 나오지 않도록 온몸을 혹사시키고는 한다. 루다의 아버지가 그랬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어도 그에게는 딸이 있었고,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사명이 있었다. 루다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다. 어쩌면 딸인 루다보다도 더욱더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회색빛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을 하는 것에만 열중했고, 잊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닐까. 그의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아름 편의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는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이 없다. 아름 편의점은 편의점보다는 시장에 더 가까운 모습인 것

같다. 나는 아름 편의점이 우리 사회를 작은 축소판으로 만들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사러 왔던 아저씨는 계산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다. 뭐든 빨리빨리가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무언가가 진행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 일쑤다.

우리는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져 기다리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하다. 그리고 타인의 상황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방법조차도.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사생활이 침해당하는데 예민한 이 사회에서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이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못하고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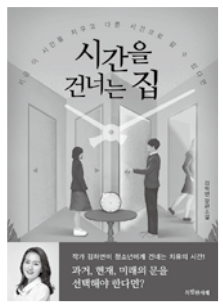
담배를 산 아저씨는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자신이 할아버지보다 더욱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돈을 냈다고 해서 권리의 우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담배를 판매하는 할아버지도 아저씨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저씨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할아버지의 판매하지 않을 권리는 아저씨의 권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권리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모습에서 아름 편의점은 추억을 일으키는 향수의 존재 같기도 하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20여 년 전 변화했던 아름 시장의 모습을 할아버지는 손님이 찾아오는 아름 편의점에서 떠올렸을 수 있다. 서우 아주머니는 아름 편의점에서 쌀국수 컵달걀찜을 만들었다. 컵달걀찜을 만들면서 밖에서 파는 것은 잘 먹지 않는데 유독 편의점 컵달걀찜만은 잘 먹었던 그녀의 소중한 아이를 추억했다. 그녀도 루다와 같이 소중한 존재를 잃은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상처도 따뜻하게 보듬어주었다.

아름 편의점은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드는 지금의 편의점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누구나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는 장소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슬픔을 떨쳐내게 하고 좋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뛰어나가는 존재들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신의 것만 생각한 나머지 잊나가기도 한다.

항상 편의점의 불을 켜놓을 테니 언제든지 이야기하러 오라고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놓아야 각자가 추구하는 자신의 인물상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소중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책은 불완전한 인간이 조금이나마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시간 선택의 고민 앞에서

‘시간을 건너는 집’을 읽고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3학년 방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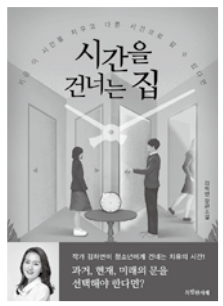
“당신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된다면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에는 ‘다시 한번만’이라는 꿈에 대한 소설로, 그 꿈의 문에 현재의 아픔과 과거의 아쉬움, 그리고 미래의 기대를 안고 네 명의 십 대 청소년들이 선택의 길에 서서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얀 운동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간의 집’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이기 싫어하는 네 명의 아이들이 나온다. 이 네 명의 청소년들은 각자 다른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 자영이는 극심한 왕따 피해를 겪으며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미는 말기 암 환자인 엄마 곁에서 지쳐가고 있으며, 자신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중2 이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민은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쾌활하고 행복한 아이다. 처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강민이 왜 등장했을까 생각했지만, 책을 읽으며 그 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라는 점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이들은 시간을 건너는 집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일 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를 소망 노트와 함께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날까지 남은 여러 달 동안 4명의 주인공들은 이 집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사건을 헤쳐 나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위 4명의 이야기는 모두 인상 깊고 나의 마음이 요동칠 만큼 흥미로웠지만, 특히 자영이의 학교 폭력 이야기는 내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 마음이 끌렸다. 얼핏 보면 학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자영이 겪고 있는 아픔보다 복잡한 학폭위 절차를 들먹이며 학교 폭력을 덮으려는 담임 선생님의 태도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 입장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집단 이기심이 느껴져 너무 가슴이 아팠다. 번지르르한 결과만을 믿고 있다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은 자영이, 하지만 이런 학교 폭력의 해결보다 주인공을 더 살아가게 만들고 힘을 내게 만드는 요소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하며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마음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왕따를 당해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자영이지만 사람으로 위로를 받자 닫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친구는 전에 사이코패스라고 위에서 언급했던 이수였다. 시간이 갈수록 자영이는 이수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력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됨을 깨달았다. 분명 지금도 자영이처럼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해자의 반성, 태도 변화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면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산업화의 필요성으로 생겨난 학교라는 공간이 피해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혹여 자신도 같은 입장이 될까 봐 두려워 나서지 못한다면 작게나마 그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말로 위로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그 한마디에 그들은 살아갈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의 시선을 끄는 흥미로운 아이, 이수가 있다. 자영이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던 이수 또한 어린 시절 게임 중독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이를 도와주려 자영이를 괴롭히던 종은이라는 친구를 칼로 찌르게 되면서 이수의 삶 또한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수가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수는 이혼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데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고 자신을 방임하는 엄마를 ‘그쪽’이라 부르며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살고 있다. 이수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엄마의 방임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요즘 여러 문제에 직면하는 아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이들의 문제 원인이 방임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도 몇몇 보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아이들의 문제 대부분이 관심의 결핍, 즉 부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수 엄마 역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수와의 소통했다면 이수의 부정성과 폭력성은 없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믿고 있는 이수도 시간의 집에서 무심한 듯 서로를 위로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사람의 삶에, 사람이 사랑을

‘시간을 건너는 집’을 읽고

김해울하고등학교 3학년 함예빈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손을 잡고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야. 네가 그런 사람들을 이미 만난 것처럼.’

- 김하연, 『시간을 건너는 집』, (특별한서재, 2020), 149쪽.

책을 고르다 보면 간혹, 그런 책이 있다. 그 책의 내용과 소재, 문체, 논평이나 작가의 이름 같은 걸 몰라도, 제목만 읽고 끌리게 되는 책이. 『시간을 건너는 집』이 나에게 그런 책이었다. 읽던 책을 마저 읽기 위해 책장을 둘러볼 때 찾던 책보다 먼저 눈에 띄고,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책일까?’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꿈에 누군가 이 책을 읽어보라며 추천해줄 정도로 궁금한 그런 책이었다. 꿈을 꾸 그날, 나는 이끌림을 견디지 못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속에는 불행했기에 ‘선택’되어 과거, 현재, 미래 중 한 가지를 고를 기회를 얻게 된 아이들이 나왔다. 선미, 강민, 자영, 이수. 기묘한 계기로 시작한 네 명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시키고, 중국엔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게 했다. 선미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이유를 잃었을 때, 자영이 바깥의 일로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강민이 진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을 때, 심지어 이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도 기꺼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다. 그 영향일까? 아이들은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한층 성장했다. 선미는 이유가 없어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영은 괴로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강민은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수는 자기 일에 책임지며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이들이 이만큼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엔 사람이, 서로가 존재했다. 사람의 삶에, 사람이 사랑을 해서 변화한 것이다. 이 책은 읽는 사람도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 쓰인 이야기였다.

행복을 위해 쓰인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려고, 이야기를 되짚어 보며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정리하려. 그리고 나니 나의 마음에 깊이 이수가 남았다. 네 명의 주인공 중 가장 크게 자란 이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워졌지만 사랑 앞에선 물러져 버린 이수, 잘못된 길을 걷다 끝내 올바른 길을 걷게 된 이수가 마음에 꼭 박혀 한동안

잊히지 않았다. 저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책의 독자라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하지만 모두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아니므로,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자세히 기록해두겠다.

이야기의 진행 중 이수의 인상적인 등장은 ‘저기’ 같은 호칭으로 엄마를 부르며 엄마에게 정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보통 정을 붙이려 하지 않는 행위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 정을 줘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그 나이대의 학생이 할 법한 말상과 행동이라 눈길이 갔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 사사건건 따지를 걸면서도 속으로는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생각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마에게 저러는 걸까?’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이수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고 이수는 사랑받지 못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어리숙한 아이로 내 안에 자리매김했다. 시간의 집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면서 겉으로 티 내려하지 않고, 부러 거칠게 말하는 점이 인상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드러나는 이수의 과거, 하필이면 이수가 도주하며 고된 생활을 하던 시점이라 그런지 더더욱 이수의 상황이 극적으로 보였다. 이수의 모든 행동을 납득시키는 서사였다. 끊임없는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자신이 그들을 사랑함을 깨달았을 때도 보답받지 못하리란 두려움에 도망가게 만든 이유를.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이수에게 좀 더 몰입하게 되었다. 마지막엔 친구들에게 되돌릴 기회가 남았음을 확인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한 이수는 네 명의 주인공 중 제일 주인공 같은 인물로 남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이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모두가 나오는 결말 부분이다. 단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썩은 장면이 아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이 책만의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야?’나 ‘뭔가 조금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의 결말은 인물들의 선택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성장, 변화가 잘 드러나서 ‘아, 애네는 이후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실존 인물의 미담을 들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뒷이야기는 나의 상상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인물들이 직접 만들어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그들은 더 이상 책 속 인물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생명체였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이 책을 읽었기에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고 사람이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글 부문
일반

경상남도교육감상

일반 대상

054 가을 하늘의 다정함
창원시 김세은



가을 하늘의 다정함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창원시 김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파란 하늘 아래, 우리는 눈을 감고 느낄 수 있다. 뜨겁게 우리를 내리찍는 태양의 시선.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의 손길.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만 본다. 다만, 오직 그것밖에 할 수 없기에.

심해처럼 깊은 하늘이 그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진 가을의 하루. 기록적인 폭염과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언제였냐는 듯, 지친 몸을 감싸 안는 따스한 햇볕과 선선한 바람은 우리의 아픔을 다정히 품어준다. 그저 묵묵히 위로를 건네는 지구의 가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인간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1세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오히려 낯설고 간질간질하는 목에 ‘혹시나’하고 자가 진단해보는, 그런 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 것도 벌써 3년째. 우리는 어느새 코로나의 아픔과 상실에 익숙해졌다. 그래,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진 것이다.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 그리고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렸던 22년. 삶을 위협하는 자연에 우리는 별별 떨었고, 또 과거의 걱정을 다시 되새겼다. 그리고는 말한다. ‘환경을 생각해야 해!’ 북극에서 갈 길을 잃은 북극곰을 떠올리고, 침몰하고 있는 해안 도시와 지금 우리네의 삶을 기억한다. 자연이 우리 일상에 적색 신호들을 빠르게 반짝일 때만 말이다.

우리는 금방 걱정하고 금방 잊어버리며, 금세 두려워하고 금세 익숙해진다. 당장 나의 일상에 위협이 되었을 때 지구의 아픔을 인지하고, 지금 내 삶에 영향이 미쳤을 때 지구의 상처를 되돌아본다. 우리는 쉽게 걱정하지만 길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라, 모든 지구의 요소들이 ‘나 지금 너무 아파. 제발 우리를 바라봐줘.’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말이다.

모든 동식물은 자연에 적응하고, 스스로 변형시키며 살아간다. 인간도 그러하다. 주변의 환경에, 사람들에 맞게 자신을 바꾸어 맞추며 살아간다. 이들 사이에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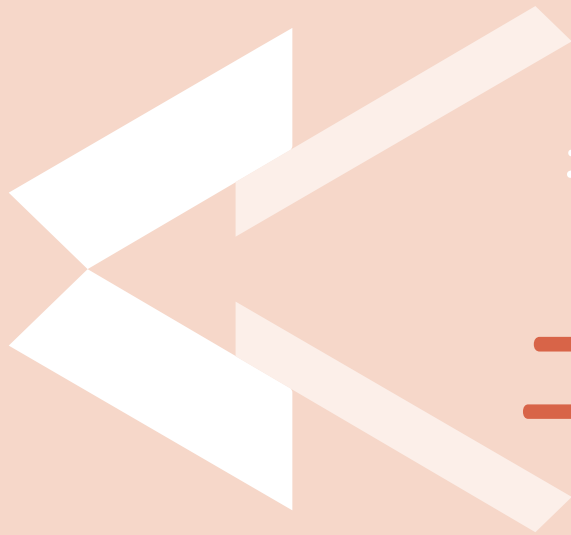
인간은 자연을 걱정한다. 자기 손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신께 매달리기도 한다. 점점 망가져 가는 지구에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그 걱정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환경오염이니 지구온난화이니 하는 것에 염려를 표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점점 늘어나는 이상기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꾸준히 자가용을 선호한다.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언제 돌변할까. 우리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그저 ‘걱정’만 할 뿐이다. 자연에 인간이 협력과 공생의 관계라면, 인간에게 자연은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을 걱정할 뿐,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아픔과 상처도 걱정되지만, 그것이 오늘의 내 편안함과 기쁨의 감정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이 지구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 것임을 말이다.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해야 한다. 언제라도 ‘그들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리를 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이다.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볼 차례가 아닐까? 누군가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깐의 행복이나 기쁨으로 덮어질 감정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두려워하고, 충만히 기억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방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가을 하늘은 높이 높이 우리를 품어준다. 전염병으로 인한 단절도,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파란 하늘은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준다. 그 속에 그저 무력하고 미약한 우리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우리도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으고 보태어 전해주자.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매년 받아왔던 가을 하늘의 그 다정함을.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대상

- 060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삼성초등학교 1학년 최재원
- 061 온전한 자유
남양초등학교 5학년 김민경

경상남도교육감상

초등 최우수

- | | |
|---|--|
| 062 아피스는 내친구
수남초등학교 1학년 지은성 | 066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 한다면?
다함께 버스타고 세계여행
남해초등학교 4학년 정지후 |
| 062 우리~ 희망차요!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학년 박지수 | 067 학교 생활 로딩중
합성초등학교 4학년 정예준 |
| 063 9마리 호랑이의 생일날
합천초등학교 2학년 최윤아 | 067 엉뚱발랄 하준수
초전초등학교 4학년 하서원 |
| 063 어흥- 어디 한번 놀아봅세
마전초등학교 3학년 김태경 | 068 나를 위로해주는 나
관동초등학교 5학년 김은성 |
| 064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성초등학교 3학년 박세은 | 068 응원해! 우리들의 청춘블라썸
계룡초등학교 6학년 권민재 |
| 064 여름방학 독서신문
김해율산초등학교 3학년 심서진 | 069 슬픈 국경
호암초등학교 6학년 김경민 |
| 065 희미해지는 자연과 생물들
호암초등학교 3학년 이선유 | 069 특★신문
벽방초등학교 6학년 배지우 |
| 065 멸망의 동물
황산초등학교 3학년 진현태 | 070 몬스터 차일드
성산초등학교 6학년 장준서 |
| 066 에어컨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
도시가 오염이 되고 있는 모습
용산초등학교 3학년 황아림 | 070 운명의 날
수남초등학교 6학년 황채민 |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선정도서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삼성초등학교 1학년 최재원



온전한 자유

선정도서 「마지막 레벨업」
남양초등학교 5학년 김민경





아피스는 내친구

선정도서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수남초등학교 1학년 지은성



우리~ 희망차요!

선정도서 「그 공 차요!」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학년 박지수



9마리 호랑이의 생일날

선정도서 「호랑이 생일날이랬다」
합천초등학교 2학년 최윤아



어흥- 어디 한번 놀아봅세

선정도서 「호랑이 생일날이랬다」
마전초등학교 3학년 김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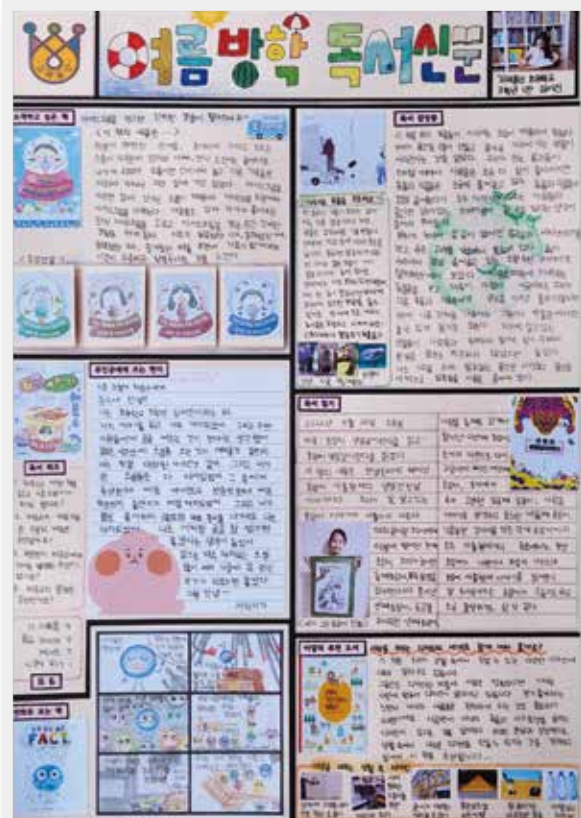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정도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월성초등학교 3학년 박세은



여름방학 독서신문

선정도서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 등
김해울산초등학교 3학년 심서진



희미해지는 자연과 생물들

선정도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호암초등학교 3학년 이선유



멸망의 동물

선정도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황산초등학교 3학년 진현태





에어컨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
도시가 오염이 되고 있는 모습

선정도서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용산초등학교 3학년 황아림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 한다면?
다함께 버스타고 세계여행

선정도서 「국경」
남해초등학교 4학년 정지후



학교 생활 로딩중

선정도서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
합성초등학교 4학년 정예준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영동발랄 하준수

선정도서 「6분 소설가 하준수」
초전초등학교 4학년 하서원





나를 위로해주는 나

선정도서 「몬스터 차일드」
관동초등학교 5학년 김은성



응원해! 우리들의 청춘블라썸

선정도서 「그때 너 왜 울었어?」
계룡초등학교 6학년 권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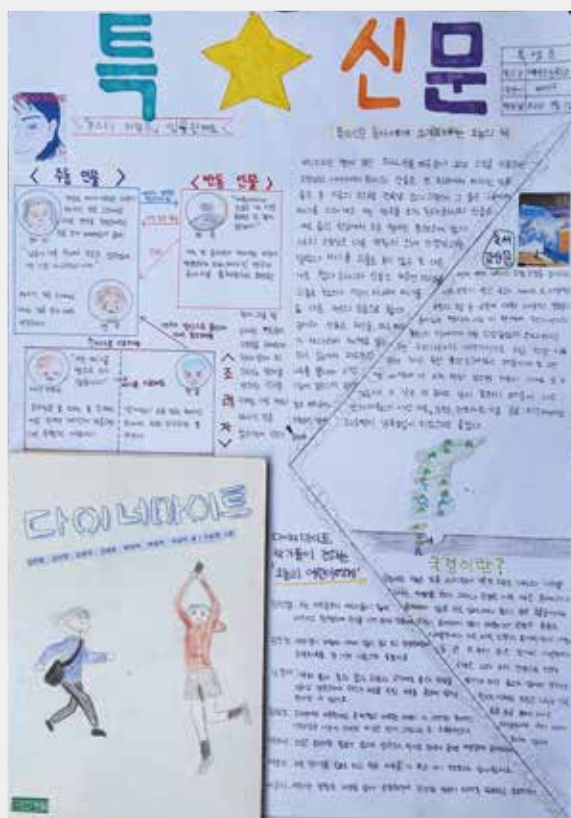
슬픈 국경

선정도서 「국경」
호암초등학교 6학년 김경민



특★신문

선정도서 「몬스터 차일드」 등
벽방초등학교 6학년 배지우





몬스터 차일드

선정도서 「몬스터 차일드」
성산초등학교 6학년 장준서



운명의 날

선정도서 「마지막 레벨업」
수남초등학교 6학년 황채민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그림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대상

- 072 슬픔
연초고등학교 1학년 장아진

경상남도교육감상

청소년 최우수

- 073 세계사 타임라인
해운중학교 2학년 김경민
- 073 떨어져도 튀는 너처럼
단성중학교 3학년 유지현
- 074 달콤했던 수박주스
내덕중학교 3학년 지예은
- 074 우리들의 끝, 그리고 시작
충무여자중학교 3학년 진민경

슬픔

선정도서 「프랑켄슈타인」
연초고등학교 1학년 장아진



세계사 타임라인

선정도서 「변기에 빠진 세계사」
해운중학교 2학년 김경민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떨어져도 튀는 너처럼

선정도서 「순례주택」
단성중학교 3학년 유지현





달콤했던 수박주스

선정도서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
내덕중학교 3학년 지예은



우리들의 끝, 그리고 시작

선정도서 「시간을 건너는 집」
충무여자중학교 3학년 진민경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초등 대상**

- 078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중 마법사탕
서남초등학교 6학년 노예린, 박가은, 박지훈, 황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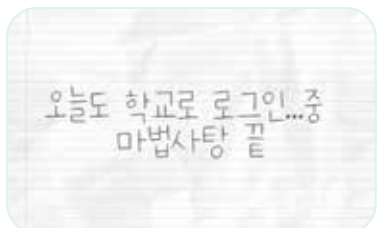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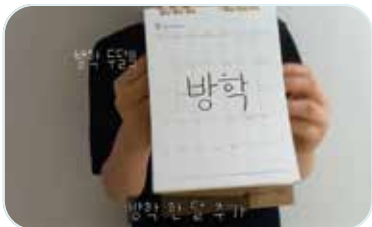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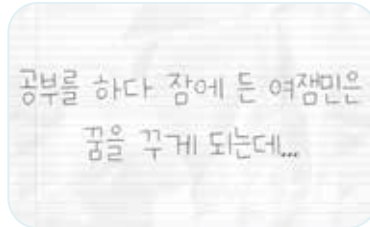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감상**초등 최우수**

- 079 나도 6분 소설가
증산초등학교 4학년 이산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중 마법사탕

선정도서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

서남초등학교 6학년 노예린, 박가은, 박지훈, 황남우



나도 6분 소설가

선정도서 「6분 소설가 하준수」
증산초등학교 4학년 이산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영상 부문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청소년 대상**

- 082 함께 바꿔봐요
김해대청고등학교 1학년 구한결, 김경희, 김우주, 손민지

경상남도교육감상**청소년 최우수**

- 083 시간을 건너는 북트레일러
수월중학교 3학년 박주영, 서유리, 서현우, 여도경

함께 바뀌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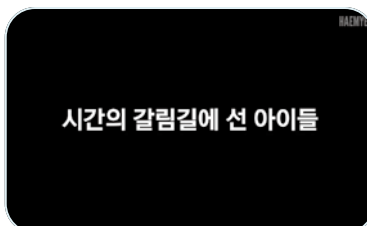
선정도서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김해대청고등학교 1학년 구한결, 김경희, 김우주, 손민지



시간을 건너는 북트레일러

선정도서 「시간을 건너는 집」
수월중학교 3학년 박주영, 서유리, 서현우, 여도경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독서 공모전

- 공모 부문: 글 부문, 그림 부문, 영상 부문
- 공모 기간: 2022. 7. 1.(금) ~ 9. 30.(금)
- 접수 결과: 총 28,175편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계
글 부문	14,499	1,847	122	16,468
그림 부문	11,070	487		11,557
영상 부문	60	90		150
계	25,629	2,424	122	28,175

- 심사 결과: 1,053편, 1,109명
 - 종합상: 64명(수정초등학교 3학년 양승현 등)
 - 지역상: 1,045명(중곡초등학교 3학년 권가은 등)
 - 지도교사상: 2명(가고파초등학교, 통영중앙중학교)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기간: 2022. 4. 28.(목) ~ 9. 28.(수)
- 운영 기관: 남하초등학교 등 32개교(관)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책 꾸러미 지원
- 운영 실적: 6,640명



가북초등학교



고전초등학교



남하초등학교



설천초등학교



구산중학교



총렬여자중학교

수상 작품 전시

- 운영 기간: 2022. 2. 10.(목) ~ 12. 23.(금)
- 운영 기관: 진영금병초등학교 등 68개교(관)
- 운영 내용: 2021년(제17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수상작품 순회 전시
- 운영 실적: 32,889명



김해모산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무동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진례초등학교



진영금병초등학교



화개초등학교



김해중앙여자중학교



마산동중학교



명석중학교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 운영 기간: 2022. 5. 16.(월) ~ 9. 29.(목)
- 운영 기관: 창원대암고등학교 등 22개교(관)
- 운영 내용: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작가와의 만남
- 운영 실적: 1,155명



유은실 창원대암고등학교



배성호 신주초등학교



정우철 통영도서관



구돌, 해랑 동포초등학교



이현 곤양고등학교



태지원 김해대청고등학교



정창권 의령중학교



이소영 신안초등학교



윤영주 중곡초등학교



박현경 정동초등학교



범유진 수동중학교



김하연 대산중학교



유미희 산내남명초등학교



이재문 김해봉황초등학교



이영숙 양덕여자중학교



심진규 대방초등학교



문현식 전안초등학교



강혜숙 거창도서관



박규빈 울천초등학교



이수용 봉원초등학교



서정홍 합천도서관



길상효 미조초등학교

2022년(제18회)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형식/주제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곰이 왔어!	조수경	올리	그림책(공동체/다양성)
2	그 공 차요!	박규빈	길벗어린이	그림책(노동/인권)
3	깊은 밤 필통 안에서	길상호	비룡소	동화(개성/존중)
4	꿀벌 아피스의 놀라운 35일	캔디스 플레밍	책읽는곰	비문학(생태/생명)
5	미움	조원희	만만한책방	그림책(마음/감정)
6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	김원아	주니어김영사	동화(가족애/행복)
7	호랑이 생일날이랬다	강혜숙	우리학교	그림책(옛이야기)
8	겨울 별	이소영	글로연	그림책(가족/관계)
9	아주 작고 슬픈 팩트	조너 윈터	라임	그림책(미디어/진실)
10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유미희	초록개구리	그림책(환경/멸종/공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6분 소설가 하준수	이수용	위즈덤하우스	동화(글쓰기/우정)
2	선생님, 착한 손잡이가 뭐예요?	배성호	철수와영희	비문학(유니버설디자인/배려)
3	오늘도 학교로 로그인	문현식	창비	시(동시/학교생활)
4	강을 건너는 아이	심진규	천개의바람	동화(역사/극복)
5	국경	구돌	책읽는곰	그림책(경계/소통)
6	그때 너 왜 울었어?	박현경	잇초북	동화(공감/성장)
7	다이너마이트	김민영 외	사계절	동화(단편/가치)
8	마지막 레벨 업	윤영주	창비	동화(모험/가상세계)
9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사계절	동화(편견/차별)
10	이토록 불편한 고기	크리스토프 드뢰서	그레이트북스	비문학(환경/비건)
청소년				
1	변기에 빠진 세계사	이영숙	자음과모음	비문학(세계사/전염병/문화)
2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런거예요	양근성	팜파스	비문학(자존감/사춘기심리)
3	순례 주택	유은실	비룡소	문학(공동체/나눔/관계)
4	시간을 건너는 집	김하연	특별한서재	문학(성장/판타지)
5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	범유진	탐	문학(가족애/위로/편견)
6	슬픈 돈을 찾아라	배리언 존슨	씨드북(주)	문학(인종차별/미국역사/추리)
7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태지원	자음과모음	비문학(미디어/차별/인권)
8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가치를꿈꾸는과학교사모임	우리학교	비문학(기후변화/미래식량/진화)
9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문학(고전/과학/인간복제)
10	호수의 일	이현	창비	문학(소문/관계/치유/회복)
일반				
1	그냥 하지 말라	송길영	북스톤	비문학(코로나이후/빅데이터/변화/혁신)
2	그대로 둔다	서정홍	상추쌈	문학(시/생태/농부시인)
3	내가 사랑한 화가들	정우철	나무의철학	비문학(화가/교양미술)
4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RHK	비문학(기후/환경/공존)
5	밝은 밤	최은영	문학동네	문학(소설/여성/삶/연대/사랑)
6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문학(소설/회복/공존)
7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여크로스	비문학(철학/삶/질문)
8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창권	돌베개	비문학(한국사/생활풍속)
9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자이언트북스	문학(소설/SF/미래지구)
10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장명숙	김영사	문학(에세이/인생/행복)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5년(제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평	이오덕	효리원
2	엄마는 거짓말쟁이	김리리	다림
3	심청가	이현순	초방책방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문제아	박기범	창비
2	작은 씨앗이 꾸는 꿈, 숲	이성아	푸른나무
3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직업이야기 51	김한준	을파소
청소년 (중학생)			
1	지붕 낮은 집	임정진	푸른숲
2	나비에 사로잡히다	샤먼 앳트 러셀	북폴리오
3	마사이전사 레마솔라이	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황소자리
청소년 (고등학생)			
1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조항범	예담
3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일반			
1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	미쳐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3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6년(제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수상한 선물가게	류가미	국민서관
2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3	누리아 누리아	양귀자	문공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의 바이올린	수지 모건스턴	주니어김영사
2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크레용하우스
3	어린이를 위한 선물	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청소년 (중학생)			
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민음사
2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아이들
3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천국에서의 하루	권대응	홍익출판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일반			
1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2	행복에 이르는 길	폴턴 J. 신	해누리
3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청목
4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김영사
5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야마자키 후미오	상상미디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7년(제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똥장군	김정희	한림
2	도깨비 아버지	이상배	국민서관
3	일기도서관	박효미	사계절
4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장주식	문학동네
5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이오덕	한길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 좀 내버려둬	박현진	천둥거인
2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북뱅크
3	빌리 엘리엇	벨킨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4	살롯의 거미줄	엘원 브룩스	시공주니어
5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청소년 (중학생)			
1	가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낭기열라
2	곰보빵	이철환	꽃삽
3	주머니속의 고래	이금이	푸른책들
청소년 (고등학생)			
1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푸른숲
2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청림
일반			
1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손혜주 외	사이언스북스
2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3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게 사랑하라	정연	고니
4	천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5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위즈덤하우스
6	행복한 사람 타샤튜더	타샤 튜더	월북
7	호미	박완서	열림원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8년(제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황소와 도깨비	이상	다림
2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씽크빅
3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이태수	우리교육
4	바나나 필통속의 공쥐	이미애	행복한아이들
5	꿀찌가 받은 상	김용인	영림카디널
6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창비
7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윤문영	계수나무
8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아이세움
9	금순아, 노을자	이상권	창비
10	아름다운 꿀찌	이철환	주니어랜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폴코스 침묵화여행	인병선	현암사
2	엄마의 마지막 선물	문선이	파랑새
3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4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대교출판
5	우리 다시 만날 때	송재찬	계수나무
6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샘터사
7	하늘을 나는 교실	에리히 케스트너	시공사
8	명혜	김소연	창비
9	가짜 한의사 외삼촌	최미선	문원
10	다산의 아버지께	안소영	보림
청소년 (중학생)			
1	나무의 죽음	차윤정	웅진지식하우스
2	하늘이 낸 성인을 꿈꾸던 공자 vs 저절로 참 스승이 된 노자	권순이	숨비소리
3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4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하페 케르켈링	은행나무
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청소년 (고등학생)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창비
3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4	내인생의 스프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일반			
1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	비형량의 낮과 밤	김인배	문학세계
3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푸른숲
4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5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6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7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청년사
8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9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이혜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09년(제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친구 도서관	김하늬	한겨레아이들
2	도둑님 발자국	황선미	베들북
3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4	선생님은 모르는게 너무 많아	강무홍	사계절
5	책 읽는 허수아비	마크 킴볼 몰튼	예꿈
6	은비네 시골일기	고정옥	진선북스
7	너 나 우리	선안나	샘터사
8	멋진 여우씨	로알드 달	논장
9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시공주니어
10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어린이
2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보리
3	책읽는 도깨비	이상배	처음주니어
4	나는 진짜 나일까	최유정	푸른책들
5	귀신 고래	김일광	내인생의책
6	우리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7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현길언	계수나무
8	마르코 폴로의 모험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9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주니어중앙
10	준비됐지?	김옥	창비
청소년 (중학생)			
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2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오바마 이야기	헤더 레어 와그너	명진출판사
3	스프링벅	배유안	창비
4	나의 권리를 말한다	전대원	뜨인돌
5	꽃피는 고래	김형경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이 일기는 읽지 마세요, 선생님	마가렛 피터슨 해덱스	우리교육
2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문예출판사
3	젊음의 탄생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4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5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외	시공사
일반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살림
3	듀이: 세상을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
4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6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7	내려가는 연습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8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구중서	책만드는집
9	습지와 인간	김현주	산지니
10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이충렬	김영사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0년(제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대머리 사막	박경진	미세기
2	이르기 대장 1학년 나최고	조성자	아이앤북
3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현태	아이앤북
4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5	큰 고추 작은 고추	하이타니	양철북
6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렌사빈	문학동네
7	알몸으로 학교 간 날	타이마르크 르탄	아름다운 사람들
8	베컴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교학사
9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송윤섭	주니어김영사
10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이금이	보물창고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숨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문학동네
2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우리교육
3	어진이의 농장 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4	지구를 지키는 가족	김바다	한림출판사
5	멋지다 우리역사	강명관	주니어김영사
6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7	맑은 날엔 도서관에 가자	미도리카와 세이지	책과콩나무
8	책 읽어주는 바둑이	이상배	처음주니어
9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10	똥 치우는 아이	김문주	예림당
청소년 (중학생)			
1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브라이언 밀러	서해문집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3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러셀 프리드먼	비룡소
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미래M&B
5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	살아 있음이 행복해지는 희망 편지	김선규 외	랜덤하우스코리아
3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푸른숲
4	시골 똥 서울 똥	안철환	들녘
5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지오	파랑새
일반			
1	재미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	공무도하	김훈	문학동네
3	햇살 한 줌 향기 한 줌	정목일	문학수첩
4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연	웅진지식하우스
5	풀밭 위의 식사	전경린	문학동네
6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문이당
7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수이치	21세기북스
8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책방
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신의진	걷는나무
1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1년(제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내 친구 조이	표지율	대교출판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뜨인돌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4	책임어주는 로봇	이영득	보림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책속물고기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파란자전거
7	강치야 독도강치야	주강현	한겨레아이들
8	쫓기기싫 쫓기기 싫	최종득	문학동네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동아사이언스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시공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당산할매와 나	윤구병	휴먼어린이
2	어느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찰리북
3	사계	마르코 심사	우리교육
4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
5	붕주르 뚜르	한윤섭	문학동네
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상수리
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파란자전거
8	나의 어설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책그릇
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10	엄마의 슬픈날	시린 호마이어	문학동네
청소년 (중학생)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	통세계사	김상훈	다산북스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살림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비룡소
5	길은 학교다	이보라	한겨레출판
청소년 (고등학생)			
1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2	가족 표류기	M.H. 헬롱	양철북
3	맹자	장현근	한길사
4	가족입니까	김해원	바람의아이들
5	소피의 세계	요스타인 가아더	현암사
일반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문학동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현대문학
3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호
4	크로스	정재승 & 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6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웅진지식하우스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이윤기	민음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이소라	그리고책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2년(제8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무릎팍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한울림어린이
2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3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4	책 씻는 날	이영서	학교재
5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발효이야기	이이화	파랑새
6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시공주니어
7	빨강연필	신수현	비룡소
8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산하
9	마틸드는 쓰레기 박사	소피세레	크레용하우스
10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정유소영	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기묘한 DNA 도서관	하바 아라시	복스마니아
2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바람의아이들
3	붕구붕구 붕규야	김문주	예림당
4	소나기 밥 공주	이은정	창비
5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문학동네
6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다림
7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람이야기	박영대	현암사
9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해숙	책과함께어린이
10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청소년 (중학생)			
1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명진출판사
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3	검은 개들의 왕	마운제	문학동네
4	핸드폰이 사라졌다	웬디 하머	개암나무
5	방주로 오세요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에릭 솔로서	모멘토
2	괜찮아, 열일곱 살	이나미	이랑
3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5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교재
일반			
1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희일	다산라이프
2	안철수의 서재	이채운	푸른영토
3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4	다 그림이다	손철주, 이주은	이봄
5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다	강풀 외	한겨레출판사
6	두근 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7	흑산	김훈	학교재
8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스님	쌤앤파커스
10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3년(제9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2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비룡소
3	맛있는 짜장면의 역사	박남정	산하
4	까만 아기양	엘리자베스 쇼	푸른그림책
5	엄마 사용법	김성진	창비
6	옆집 아이는 로봇	한주형	책과콩나무
7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이야기	한영식	아이세움
8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9	착한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로연
10	천개의 바람 천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천개의바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굳게 다짐합니다	조경숙	국민서관
2	귓속말 금지구역	김선희	살림어린이
3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정창권	사계절
4	날씨 전쟁	토니 브래드먼	사파리
5	섬마을 스캔들	김연진	살림어린이
6	속담 속에 숨은 수학(단위와 측정)	송은영	봄나무
7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9	왜 우리는 친구일까?	박성철	서교
10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석혜원	풀빛
청소년 (중학생)			
1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외	꿈결
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3	열혈 수탉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
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5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고정욱	애플북스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웅진지식하우스
3	박철범의 공부특강	박철범	북스토리
4	수상한 화가들	박석근	사계절
5	살아있는 귀신	서른	창비
일반			
1	꾸뻏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미래
2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3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4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다른
5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리더스북
6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9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10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4년(제10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키다리
2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 맥키삭	고래이야기
3	내 뽀스	박종채	키다리
4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키다리
5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육재	노란돼지
6	멋대로 맘대로 월로	데니즈 브레넌 벨슨 외	찰리북
7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문학동네
8	발레하는 할아버지	신원미	머스트비
9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실천문학사
10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린다 그리바	아름다운 사람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	게임 파티	최은영	시공주니어
3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살림어린이
4	나는 바람이다 1-2	김남중	비룡소
5	나는 투명인간이다	박성철	아이앤북
6	말이 통하는 아이	노여심	주니어김영사
7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두레아이들
8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흥식	파란자전거
9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말려줘	태미라	스콜라
10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오진희	웃는돌고래
청소년 (중학생)			
1	남쪽 섬 티오	이케자와 사쓰키	미래인
2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박지혜	뜨인돌
3	십대를 위한 직업 백과	이랑	꿈결
4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5	휴대폰 전쟁	로이스 페터슨	푸른숲주니어
청소년 (고등학생)			
1	방커	추정경	놀
2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3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
4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5	지구가 뽐났다	남종영	꿈결
일반			
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낮은산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
6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한겨레출판
7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난다
8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박영신	정신세계사
9	인생수업	법륜	휴먼어린이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5년(제11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5대 가족	고은, 이억배	바우솔
2	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	이하은	파란자전거
3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강정연	라임
4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창비
5	슈퍼 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6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핏, 게리 루빈스타인	두레아이들
7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두레아이들
9	플라스틱 섬	이명애	SANG
10	햄스터 마스크	우쓰기 미호	책읽는곰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갈색 아침	프랑크 파블로프	휴먼어린이
2	빵 터지는 빵집	원유순	크레용하우스
3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악당의 무게	이현	휴먼어린이
5	앵그리맨	그로 달레	내인생의책
6	앵무새 돌려주기大作전	임지윤	창비
7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8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사계절
9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책과콩나무
10	초등생을 위한 환경특강	윤해윤	나무처럼
청소년 (중학생)			
1	김치도 콩치도 아닌 정치	임정은	다른
2	내 이름은 욕비	욕비 토나	이후
3	모두 갇힌	김중미	창비
4	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	양철북
5	우리 친구 맞아?	이남석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	델 문도	최상희	사계절
3	수상한 북클럽	박현희	문학동네
4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5	어쩐지 근사한 나를 발견하는 51가지 방법	공혜진	동양북스
일반			
1	1그램의 용기	한비야	푸른숲
2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3	단속사회	엄기호	창비
4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윤신영	MID
5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6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아트
7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8	자스민, 어디로 가니?	김병중	열림원
9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
10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6년(제12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거북이북스
2	나부랭이!	제니 오피	봄나무
3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허가람	웅진주니어
4	마음을 배달해 드립니다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	멧돼지가 쿵쿵 호박이 동동	김애란	창비
6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고래이야기
7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8	소원을 말해 봐	김소연	비룡소
9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10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2등을 위하여	실비아 태케마	아름다운 사람들
2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3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어린이
4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	머스트비
5	아빠, 소 되다	해리 해성	한림출판사
6	얘들아, 왜 지구가 아픈지 아니?	안드레아스 슐롬베르거	토토북
7	엄마는 학교 매니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9	쥐포 스타일	김지영	비룡소
10	화학이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실바나 푸시토	찰리북
청소년 (중학생)			
1	꼰대 아빠와 등골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	김경선	자음과모음
2	소년이며, 요리하라	금정연 외	우리학교
3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4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5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청소년 (고등학생)			
1	꽃 달고 살아남기	최영희	창비
2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3	창박의 아이들	이선주	문학동네
4	하리하라의 음식과학	이은희	살림Friend
5	홀딩 파이브 도와줘!	김성빈	마리북스
일반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운	21세기북스
2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3	근시 사회	폴 로버츠	민음사
4	내 서재 속 고전	서경식	나무연필
5	담론	신영복	돌베개
6	사랑하는 안드레아	퉁잉타이, 안드레아	양철북
7	서민적 글쓰기	서민	생각정원
8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9	철학의 힘	김형철	위즈덤하우스
10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7년(제13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2	거짓말	카트린 그리브	씨드북
3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κρι바	한울림스페셜
4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5	산딸기 크림붕붕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6	아빠나무	김미영	고래벳속
7	커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찰리북
8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9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10	혼자가 아닌 날	구오징	미디어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503호 열차	허혜란	샘터
2	대단한 단추들	이정록	한겨레아이들
3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4	바람의 맛	김유경	이야기꽃
5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비룡소
6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7	엘 데포	시시 벨	밝은미래
8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9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은옥	비룡소
10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남찬숙	미세기
청소년 (중학생)			
1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안야 슈튀르처	푸른숲주니어
2	싸이퍼	탁경은	사계절
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최종욱	창비
4	안중근 재판장 참관기	김흥식	서해문집
5	이런 법이 어땠어?	니콜라 린트너	탐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린잡	박경화	양철북
2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3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사계절
4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5	한 스펀의 시간	구병모	예담
일반			
1	EBS 다크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크프라임 제작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2	거짓말이다	김탁환	북스피어
3	공부할 권리	정여울	민음사
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알키
5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블드	반비
6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8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양철북
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10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서해문집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8년(제14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2	그 소문 들어어?	하야시 기린	천개의바람
3	두 배로 카메라	성현정	비룡소
4	마지막 뉴스	서정홍	웃는돌고래
5	바로 그 신발	마리베스 볼츠	지양어린이
6	생각이 커진 집	리샤르 마르니에	책과콩나무
7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문학동네
8	영동한 수리점	차재혁	노란상상
9	영터리 집배원	장세현	어린이작가정신
10	오, 멋진데!	마리 도를레앙	이마주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만 잘하는 게 없어	이승민	풀빛
2	나무도장	권윤덕	평화를 품은 책
3	내가 개였을 때	루이즈 봉바르디에	씨드북
4	넘어진 교실	후쿠다 다카히로	개암나무
5	다 잘 될 거야	키어스텐 보이에	책빛
6	멋진 하루	안신애	고래벳속
7	바닷가 탄광 마을	조앤 슈워츠	국민서관
8	붉은 실	이나영	시공주니어
9	아빠, 왜 히틀러한테 투표했어요?	디디에 데랭크스	봄나무
10	플로팅 아일랜드	김려령	비룡소
청소년 (중학생)			
1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오찬호	나무를심는사람들
2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푸른숲주니어
3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문지현	뜨인돌
4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조성배	반니
5	운동장 편지	북효근	창비교육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박민영	북트리거
2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3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4	스타벅스에 간 소녀	소피 킨셀라	라임
5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하지현	창비
일반			
1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휴머니스트
2	기술 중독 사회	켄타로 토야마	유아이북스
3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4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5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	승효상	돌베개
6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7	소비의 역사	설혜심	휴머니스트
8	아름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9	예술, 역사를 만들다	전원경	시공아트
10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21세기북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19년(제15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나는 소심해요	엘로리 페로탱	이마주
2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천개의바람
3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여유당
4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전금자	비룡소
5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	나는별
6	터널	헤게 시리	책빛
7	행복한 줄무늬 선물	야스민 세퍼	봄별
8	곰팡이 수지	레오노라 라이틀	스콜라
9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10	한밤중 달빛 식당	이분희	비룡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꿈꾸는 코끼리 디짜이	강민경	현암주니어
2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논장
3	표절 교실	김해우	크레용하우스
4	까칠한 아이	남찬숙	대교북스주니어
5	나이 도둑	정해왕	해와나무
6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한울림어린이
7	도서관을 훔친 아이	알프레도 고메스 세르다	폴빛미디어
8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찰리북
9	리얼 마래	황지영	문학과지성사
10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	다나카와 쉼타로	천개의바람
청소년 (중학생)			
1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	산하
2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푸른숲주니어
3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서의동	너머학교
4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	추정경	둘베개
5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뜨인돌
청소년 (고등학생)			
1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	상추쌈
2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자음과모음
3	왜 언론이 문제일까?	박영흠	반니
4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5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특강	최원형	철수와영희
일반			
1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2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김연숙	천년의상상
3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4	마녀체력	이영미	남해의봄날
5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현대문학
6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7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	푸른숲
8	시가 있는 바닷가 어느 교실	최종득	양철북
9	유머니즘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10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0년(제16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유다정	와이즈만BOOKs
2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	김유	시공주니어
3	내일 또 싸우자	박종진	소원나무
4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튀	봄별
5	밀어내라	이상옥	한솔수북
6	천하무적 용기맨	김경희	비룡소
7	평 아저씨	김미소진	계수나무
8	강아지 시험	이묘신	해와나무
9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천개의바람
10	힙합 독수리	박주혜	비룡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이현	만만한책방
2	셋다운	김태호 외	현복스
3	축구왕 이채연	유우석	창비
4	간송 미술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김민규	토토북
5	내가 김소연진아일 동안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6	어린 만세꾼	정명섭	사계절
7	우리는 반대합니다	클라우드디 푸엔테스	초록개구리
8	유투브 전쟁	양은진	엠앤키즈
9	착한 마녀의 일기	송현섭	문학동네어린이
10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고소했다	공수경	대교북스주니어
청소년 (중학생)			
1	동물 농장	조지 오웰	.
2	저 청소년 하는데요?	김예지	21세기북스
3	질문하는 영화들	라제기	북트리거
4	체리 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5	최저 임금 쯔 아는 10대	하승우	풀빛
청소년 (고등학생)			
1	시간을 파는 상점. 2 : 너를 위한 시간	김선영	자음과모음
2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3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시공사
4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한겨레출판
5	페인트	이희영	창비
일반			
1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2	감정 폭력	베르너 바르텐스	걷는나무
3	경찰관속으로	원도	이후진프레스
4	도시의 얼굴들	허정도	지앤유
5	로마법 수업	한동일	문학동네
6	설이	심윤경	한겨레출판
7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후	메이븐
8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환	북스피어
9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	김달님	어떤책
10	퇴근길 클래식 수업	나웅준	페이스메이커

경남독서한마당 역대 선정도서 2021년(제17회)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나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허정윤	한솔수북
2	말들이 사는 나라	윤여림	위즈덤하우스
3	범 내려온다	김진	아이들판
4	우리 곤충 채집할래요?	이노우에 타케나리	썬더키즈
5	이까짓 거!	박현주	이야기꽃
6	큰일 났다	김기정	다림
7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천개의바람
8	걱정 세탁소	홍민정	좋은책어린이
9	욕 좀 하는 이유나	류재향	위즈덤하우스
10	이불 바다 물고기	황섭균	웅진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밤의 교실	김규아	샘터사
2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사계절
3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로연
4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상상의집
5	고조를 찾아서	이지은 외	사계절
6	내가 만만해?	이지호(역음)	어린이시나라
7	너의 운명은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최원형	책읽는곰
9	씨드	최영희	동아시아사이언스
10	편의점	이영아	고래뱃속
청소년 (중학생)			
1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2	독고송에게 반하면	허진희	문학동네
3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 맥커시	상상의힘
4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북트리거
5	할아버지의 달콤한 유산	평수화	뜨인돌
청소년 (고등학생)			
1	법정에 선 수학	레일라 슈넵스 외	아날로그
2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신지나	다른
3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창비
4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유희, 윤예림	창비교육
5	콜센터 상담원, 주운 씨	박주운	애플북스
일반			
1	가재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언스	살림
2	경남 동네 여행	이서후 외	경남도민일보
3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브래디 미카코	다다서재
4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고재욱	웅진지식하우스
5	매핑 도스토옙스키	석영중	열린책들
6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어크로스
7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8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
9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	인플루엔셜
10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박건호	휴머니스트

